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 행복한 교육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상담 지도

청소년 문화와 생활지도

정책대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대안은?”



# Contents

6 June 2014 | Vol. 383

## 정책

### 기획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상담 지도

- 04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지도\_ 서우석
- 06 진로진학상담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린다\_ 최승복
- 10 현장①\_ 제주중앙여자중학교\_ 고문심
- 12 현장②\_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_ 박재조
- 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과제\_ 김종우
- 16 현장 중심 진로·상담을 위해서는...\_ 김봉환

- 18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대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대안은?”  
오성배 / 류기형 / 최이선
- 22 정책카툰 독도교육 강화
- 23 정책해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낮춘다\_ 한위전
- 26 만화로 보는 교육부 정부 3.0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28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29



38



COVER STORY

대전삼성초등학교 복도에 초록빛 화분이  
내걸려 있다. 쓸모 없는 빈 페트병이 상그러운  
생명을 키워낸다. 내가 누구인가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듯.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 29 꿈이 영그는 현장 강원중학교\_ 이순이
- 33 에너지충전소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_ 김철수
- 34 삶과 교육 이건표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_ 한주희
- 38 이런 수업 어때요 이미란 흥성여중 수학교사의 '인성중심 수업'\_ 한주희
- 42 함께 여는 행복교육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_ 황자경
- 44 학교 밖 학교 철도박물관 & 철도안전체험센터\_ 이순이
- 46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평생교육의 선진국, 스웨덴\_ 강 석
- 48 초점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A. 콜 박사\_ 한주희
- 50 명예기자 리포트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해밀/두드림 프로그램' 외
- 52 교육현장 속으로

정보

교육논단 청소년 문화와 생활지도

- 54 청소년 문화의 속성과 위상\_ 장근영
- 56 창조적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_ 박진규
- 58 청소년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_ 김 민
- 60 행복칼럼 누가 수업 전문가인가\_ 김차진
- 62 교육과 법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_ 홍원일
- 64 학교·학급경영노트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_ 송하근
- 67 진로나침반 진로장벽,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_ 허은영
- 70 아이의 사생활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신조어\_ 김서규
- 72 시·도교육청은 지금 인천 / 울산 / 강원 / 경남
- 76 뉴스브리핑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속 해결 외\_ 편집실

교양

- 77 일상의 심포 흥천 강재구 소령 기념관\_ 황자경
- 80 행복게시판 행복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五花만담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상담 지도





화가

-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지도
- 진로진학상담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린다
- 현장①\_ 제주중앙여자중학교
- 현장②\_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 현장 중심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2014년에 835명(중학교 669명, 고등학교 166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했다. 진로교사의 배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학생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서 각자의 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5,525교)에서 진로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상담지도 지원정책과 효과를 살펴본다.

#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지도

글 | 서우석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경인교대 교수)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 때 행복을 느낀다는 데에는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일과 직업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의 범위와 폭,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관계와 태도, 가치관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며,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진로지도, 왜 필요한가

우리는 모두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다고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또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 공부에 몰입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일터에서 신나게 일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54만여 명의 졸업자 중 16만 명이 졸업할 시기에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현재 직업 세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 변화로 직업의 생애주기(수명)가 짧아져 미국은 벌써 약 8.7개의 직장(직업)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은퇴한다고 한다.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로 인력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로 연결된다.

급의 불일치도 심화되고 있다. 취업 눈높이의 문제로 고학력 청년층은 구직난에 처해 있고,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왜곡된 직업관과 정보 부족으로 일부 인기 학과 및 인기 직종을 과잉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사교육 문제,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직업을 잘 선택하고 직업 세계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진로지도'이다. 즉,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직업 세계에 들어가고 그 직업 세계에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조사 활동, 직업 정보제공 활동, 진로상담 활동, 진로 정치 및 추수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진로지도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가 공동으로 '진로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우리나라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만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담겨있고, 실제로 실행되어 우리나라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지평을 바꾸어 놓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진로 정보와 진로상담 등의 진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부분 중등학교에는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교과 활동(진로와 직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진로 코칭, 진로 멘토링, 진로상담, 진로컨설팅 연수를 받고 학교진로교육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자유학기제'와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과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차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보급하여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 능력을 높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세계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국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직업 세계에 들어가고 그 직업 세계에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진로교육법의 입법화 추진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진로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군·구별로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예: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컨트론타워(예: 국가진로체험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폭주하는 업무를 지원할 전문적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에 진로담당교사 배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로교육법'이다. 이 진로교육법이 2013년 1월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진로교육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로 연결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마침내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②

# 진로진학상담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린다

글 | 최승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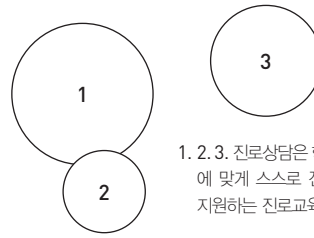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진로 개척을 지원하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진로교육이다.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을 통하여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이다. 특히 학교에서 학력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일생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 타인과 적절하게 관계 맺기와 소통하기 역량을 기르며, △일과 직업세계의 중요성과 가치, △직업세계의 구성과 체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회 및 직업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활동이다.<sup>1)</sup>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진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진로상담은 학생 개개인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희망에 맞게 스스로 진로설계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핵심 활동이다. 진로상담을 위해 교육부는 진로심리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온라



1)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매뉴얼(일반교), 서울, 3쪽.





1. 2. 3. 진로상담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희망에 맞게 스스로 진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핵심 활동이다.

인 검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돕고 있고, 학생들의 요청이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와도 자녀의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상담 활동을 돕기 위해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 모든 중·고교에 배치

우선,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2011년 3월에 최초로 도입되어 2011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1,498명 배치를 시작으로(고등학교에 우선 배치), 2014년 5월 현재까지 5,209명이 전국 5,383개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한 1명씩(일부 소규모학교는 순환교사) 배치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신설(11.3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로교육 및 진학상담을 제공하며, 진로체험활동 및 학교 진로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등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상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입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학교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과교사이며, 기존의 중등 교과교사가 부전공 자격연수(570시간)를 받고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되어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진로활동을 담당하면서 학생 진로상담을 수행하고,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학교의 진로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생 진로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결과표를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심리검사결과표를 보고 학생의 진로설계와 관련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NEIS를 개선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초등학교 5학년부서의 진로 희망사항과 진로 희망사유, 진로활동 기록을 참고하여 학생들과 진로진학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로활동관련 사항 연계서비스는 올해 NEIS 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5년부터 전국 학교에 제공될 예정이다.

### 진로심리검사 도구 개발·보급

교사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진로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로심리검사 시스템을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개발하여 커리어넷(www.careernet.go.kr)을 통해서 운영 및 서비스하고 있다. 진로심리검사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아로주니어와 아로플러스,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결과표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추천 직업목록과 그와 관련된 진학정보,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로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매년 중·고등학생 300만 명 정도가 커리어넷의 진로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은 두 가지 경로로 제공되고 있다. 우선은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거나, 혹은 교사의 판단에 따라 상담 필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상담 혹은 그룹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진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학생들과 주 평균 7시간, 한 학생 평균 30분 정도를 진로진학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도 수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진로상담의 다른 한 경로는 온라인 진로상담이다. 시·도 교육정보원이 운영하는 진로정보(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다. 커리어넷 진로상담은 비밀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해당 사항을 게시하지 않고 공개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상담 코너에 올리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개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상담은 매년 3만여 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참고하거나 중심단어 검색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상담내용을 볼 수 있어 간



단위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개별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Career Zone)'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로교사가 배치되는 모든 학교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진로활동실에서 학생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도하에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심층적인 진로상담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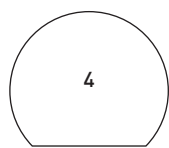
접상담 효과도 크다. 또한, 지난해에는 친구들의 진로고민에 대해 학생들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레상담을 5천 건 이상 수행했다.

#### '진로활동실' 구축사업 추진

단위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개별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Career Zone)'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로교사가 배치되는 모든 학교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진로활동실에서 학생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도 하에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심층적인 진로상담을 받게 된다.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되면 청소년기의 방향과 일탈, 학교폭력 등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진로활동실 설치율은 2013년 현재 중학교가 36.7%, 고등학교가 46.5%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진로 교육활동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개인에 맞춘 진로개발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⑤



4. 학생들은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심층적인 진로상담을 받게 된다.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

현장①\_ 제주중앙여자중학교

# 진로활동실 구축으로 다양한 진로·상담 이끈다

글 | **고문심**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와~ 좋다! 선생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마룻바닥을 깔아 아늑해진 분위기에 아이보리색의 책상과 그린 계통의 의자를 들인 다음 날 아이들은 흥분을 참지 못한 채 질문을 쏟아냈다.

“응, 진로활동실! 「진로와 직업」 수업도 하고,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야.”

우리학교는 지난해 진로활동실을 만들었다. 전체 교실의 분위기를 연둣빛으로 하고 같은 계열의 원목 책상과 블라인드까지 갖춰 마치 색을 맞춘 듯 세팅하였다. 아이들이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이다. 그런 편안함에 더하여 진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기에 태블릿 컴퓨터도 갖추었다. 덕분에 수업 시간에는 2명이 한 대 꼴로 사용하며 더욱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정보를 탐색하기도 하고, 원하는 경우에 온라인 심리검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빼곡히 책장을 메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직업과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알아 가고 있다.

### 다양한 진로·상담지도가 가능한 ‘진로활동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면서 가능해졌다. 올해로 진로교사가 배치된 지 3년, 그리고 진로활동



동실 구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진로교육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이라는 진로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이 불의 원료가 되는 기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로교육 목표 체계를 세우고 진로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이다. 이러한 SCEP의 적용은 ‘어떻게 하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진로역량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였다. 진로수업과 체험,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엮을까 하는 고민을 말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활동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진로독서 활동과 직업 탐색, 미래 사회 탐색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진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 자료를 통해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학생 활동 작품을 게시



1	2
---	---

1. 직업카드게임을 통한 흥미 탐색, 직업 탐색 활동
2. 학부모 진로코칭 양성 연수



해 자연스럽게 또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 탐색 동아리 16개 운영, 학급 단위의 진로 탐색, 학년 단위의 진로 체험의 날 등 다양한 진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여성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배우며, 필요한 능력을 배워가는 여성진로아카데미는 실질적인 직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을 통해 다양한 탐색 활동, 경진대회, SCEP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년의 진로 목표에 따라 계획·운영하고 있다.

**쪽지 상담 등으로 고민에 귀 기울여**

이러한 여러 활동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원만한 활동, 유의미한 피드백을 통해 그 과정들을 의미 있게 엮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한다. 매주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것을 엮어내

기는 역부족이지만 조금씩 엮어가고 있다. 1, 2학년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생각을 차곡차곡 노트에 정리하고 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까지도 말이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연결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경우에는 노트를 확인하며 바로 몇 줄 정리해 주는 쪽지 상담으로, 좀 더 정보를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뉘어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다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소질과 적성, 장점, 흥미 등의 자기 이해를 더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학생의 요구를 조금은 해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욱 관심 가지고, 중학교라는 과정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연습을 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상담,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성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유의미하게 엮어내기 위해서는 진로교사가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틀에 박힌 머릿속 상담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유의미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잘 자라 무성한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여름 날 많은 이에게 안식을 주듯이, 우리 아이들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의 진로지도 및 상담정책이 한 순간의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②

## 현장②\_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 집단·사이버상담 활발... 프로세서 개발로 상담 체계화

글 | 박재조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일선 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진로가 빠진 진학은 방향을 잃기 쉬워 위험하고, 진학이 빠진 진로는 알맹이가 없는 쪽정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는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진로상담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일반계고는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마련하는 자체가 민폐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선은 횡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담을 해보자. 결국 답을 찾았다. 하나는 집단상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이버상담이다.

### 집단상담 10단계로 진행... 1:1면담은 E-메일상담 병행

먼저 집단상담부터 도전해 보기로 했다. 집단상담의 프로세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와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창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새로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진로진학상담포털사이트를 구축했다. 그리고 <둔여진로정보지>라고 하는 진로관련 주간정보지를 매주 발행했다. 이 두 가지는 집단상담 프로세서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세서는 ① 대표학생이 집단상담 팀을 구성하고 구글문서로 작성된 신청서에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② 교사가 대표학생에게 상담안내 문자보내기 ③ 상담신청 팀과 일정협의 및 오리엔테이션, 동의서



집단상담 프로세서는 총 3회기로 진행되며 회기당 60분씩 총 180분이 소요된다.

작성 ④ 차를 마시며 라포르(rapport) 형성 ⑤ 자기소개 및 고민나누기 ⑥ 개인별 심리검사 결과 해석하기 ⑦ 개인별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듣기 ⑧ 교사가 학생 개인별 심리검사 결과 해석하기 ⑨ 커리어넷 적성카드를 활용한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기이해 ⑩ 소감 나누기 등 모두 10개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장소는 진로진학상담실로 하고 많은 준비물(휴대용 빔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커리어넷 적성카드 스티커, 종이컵, 따뜻한 차, 세미나용 테이블, 개인별 심리검사결과, 가위, 풀,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적성 양식)도 챙겼다. 시간은 주로 야간자율학습 3시간을 60분씩 3회기로 구분하여 1회기에는 프로세서의 ⑥번까지, 2회기에는 ⑧번까지, 3회기에는 ⑩번까지 진행을 했다.

역시 시작이 어렵지 학생들의 적응은 빨랐다. 처음에는 한 팀을 상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프로세서에 익숙해지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상담도 편

해졌다. 무엇보다 고민을 함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공부 속에서는 선의의 경쟁자가 상담 장면에서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상담자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집단상담을 통해서 완전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공개하기 싫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부분은 1대1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이버 상담이다. 처음에는 커리어넷처럼 <게시판 기능>을 이용한 공개, 비공개 상담을 할까 하다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E-메일상담이다. 학생들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워드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는 방식이다. 조금은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안전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다.

### 진로고민 나누며 또래 해결 도와

집단상담을 하면서 1대1 면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인원들을 소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진로고민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고민을 친구의 도움으로 서로 해결하기도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자체로

고민의 무게를 더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정규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시간이 아닌 야간자율학습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다. E-메일상담은 어느 순간 규칙적인 상담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필자는 매주 일요일 오전은 사이버 상담의 시간으로 정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약 네 시간 정도의 상담을 진행한다. 주말 동안 학생들이 신청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담인 것이다. 그 결과 아주 가벼운 내용에서부터 조금은 무거운 내용까지 상담에 접근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담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로 4년째 생활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다. 진로진학상담업무와 진로진학상담의 균형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로진학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해 업무모드에서 상담모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결국 많은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여전히 진로, 진학, 상담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상담이다. 진로교육은 모든 수업 속에서 모든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⑦

표. 집단상담 프로세스

회기	내용	세부 내용	시간
준비과정	• 진로심리검사 실시→해석→정리	•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실시 • 개인별 진로심리검사결과 해석 및 정리	
	• 소집단 구성	• 소집단 상담 프로그램 안내 • 대표 학생에게 문자 보내기 • 오리엔테이션 및 동의서 작성	
1	• 자기소개 및 고민 나누기 • 개인별 진로심리검사결과 해석→정리→요약	•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결과와 단계 해석 • 대표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 소집단 구성원과 일정 협의 • 자기소개서 작성(상담 신청 동기, 고민, 상담목표 포함)	60분
2	• 친구들의 생각 나누기 • 교사에 의한 결과 해석	• 개인별 진로심리검사결과와 해석 • 구성원의 진로심리검사결과와 해석 내용 정리 및 요약	60분
3	• 직업적성카드 활용 • 소감 나누기	• 적성카드를 활용하여 친구들의 생각 수렴하기 •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양식에 적성카드 정리 및 의견 교환하기 • 집단상담 소감 나누기	60분
총			180분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글 | 김중우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서울 양재고 교사)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채 일부 인기 학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과 해당 직종의 과잉 선호 현상, 학벌주의 등은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2011년부터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주목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수행하는 일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진로교육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하며, 선택된 직업을 준비함은 물론 그 직업에 취업하여 잘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이를 위해 △교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하는 등 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진로·진학과 관련된 학생 상담 및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진로 관련 에듀팟 관리, △개인별 맞춤형 커리어 포트폴리오 지도, △진로심리검사 컨설팅,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교육 연수, △직업체험처 발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지원과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취업 활로를 모색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 진로·상담 소홀히 여겨져… 인식 전환부터 시작해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 막중하지만, 현재는 중·고등학교에 각 한 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매우 많고 바쁘기 마련이다. 더욱이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진로체험 활동을 강조한 자유학기제는 전적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제도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며, 무엇을 공부할지 또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이를 위해 열심히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면서도 누구보다 진로지도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로, 학교관리자나 교육구성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기성세대부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학지도가 진로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이나 적성은 존중될 수 없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업지도에 비해 진로지도 및 상담을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에서 상위 30%는 진로



직업의 사회적 의미가 단순한 생존에서 자아실현의 의미로 진화하게 된 현대에서는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안정에서 보다 자기 적성의 계발, 자기 가치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 이런 현실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필요 없다. 공부도 잘하고 엄마가 알아서 하니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고 하는 교육관계자의 말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로중심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선 학교장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로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체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우선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직업체험이 관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돕는 건 쉽지 않다.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하고,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험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더욱 멀리 내다보고 진로지도 정책을 세워야 한다.

#### **학교마다 독립적인 진로상담실 구축 필요**

셋째로 단위학교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다. 현재 독립적인 상담실이 없는 학교가 많다. 여러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고민을 털어놓기 기대하기란 어렵다. 커리어존을 확보해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 꼭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학교 예산 배정에서 커리어존이 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건 아쉬운 일이다. 때문에 학교 예산 중 일정액은 반드시 진로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로교육은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로 진로진학교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우리 현실에서 진학을 배제한 채 진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로와 진학지도는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특히, 개인의 맞춤형 진로지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통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전 생애에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며 은퇴 후 ‘제2 직업’을 갖게 될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직업의 사회적 의미가 단순한 생존에서 자아실현의 의미로 진화하게 된 현대에서는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안정에서 보다 자기 적성의 계발, 자기 가치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 이런 현실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자. ⑤

## 현장 중심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글 |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최근에 이르러 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와 상담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물론 학생 진로지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왔고, 끊임없는 강조의 대상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 다분히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적으로 중요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체가 있는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0여 년 전부터 진로지도의 씨앗을 뿌리고 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물을 축적했던 진로지도 1세대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서서히 싹으로 나오고 튼실한 줄기를 만들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필자로서는 매우 반갑고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다. 괜찮은 것으로 검증된 정책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중단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인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이 재미없다고 학생들이 투정을 부리지 않을 것인지, 빈번한 직업체험과 심리검사 실시로 학생들이 '진로피로감'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걱정들이 당연히 기우(杞憂)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진로지도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첫째, 진로에 관한 발달이론이 도입되면서부터 우리



정체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생겨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얻게 된다.

는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선택과 준비단계라고 일컬어 왔다. 진로의식 발달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진로발달의 토대가 튼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이를 주도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존재하듯이 초등학교에도 당연히 진로지도를 선도할 교사가 양성되고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양성과정에서 진로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초임 발령을 받은 순간부터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양성 과정에서는 대체로 진로지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여러 번 들을 뿐이지 현장 지향적인 진

로지도와 상담의 방법을 체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내의 다른 교사들도 진로진학상담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는 학교당 단 한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교사가 전교생을 모두 지도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습한 이론과 기법을 다른 교사들에게 유포시키고, 그런 활동이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상담 영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과목에 특화된 교수·학습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진로지도 영역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교과를 통한 학습이다. 교과는 처음부터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획되었고, 그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정교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방법을 장시간 수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과목 채택률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 아직도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기대보다 해당 과목이 재미없고 발표를 자주 시켜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다섯째, 범교과 진로지도(혹은 교과통합형 진로지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그에 적절한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필자는 각 교과목을 가르칠 때 진로의 관점을 곁들일 경우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목 담당 교사들은 교과 내용 중에서 그러한 소재를 찾아내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보다 부드러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

학교의 경영자가 진로교육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진로지도와 상담이 학교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교사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지도에 임하며,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력한다면 분명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자체 워크숍을 통해 알려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직업체험 활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의 특징은 '의도성'에 있다. 직업체험 활동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되어야 하며, 실천 과정에서는 그 의도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직업체험 현장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체험을 마치고 나면 해당 직업에 대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공부하는 이유 스스로 찾게 될 것

학교의 경영자가 진로교육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진로지도와 상담이 학교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교사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지도에 임하며,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력한다면 분명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정체감 형성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정체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생겨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장된다면 청소년 비행이나 교실붕괴를 막는 작은 창을 진로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열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대안은?”

‘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아요?’ ‘가해학생 처벌이 완화되는 건 아닌가요?’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바라보며 적잖이 답답함을 느낀 학부모가 정책담당자와 만나 허심탄화하게 대화를 나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실천해야 할 건 무엇인지, 학부모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CCTV를 하나 더 설치하기보다 ‘관심’을 한 번 더 보내달라는 학부모의 말에 정책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나누었다.



### 참석자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류기형** 광영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최이선** 연북초등학교 학부모

### 대화 일시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오후 1시

총괄 : **곽은우** 본지 총괄 교육연구사  
 진행 : **황자경** 본지 편집장  
 정리 : **한주희** 본지 기자

**진행자** | 정부는 학교폭력을 사회의 4대악 중 하나로 정하고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면,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나요?

**오성배** |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학생인권 문제가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을 예전과 같이 다루면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2000년대 들어와 법률과 제도로써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

되고, 그 이후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부나 단위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학교폭력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변화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류기형** | 가해학생 처벌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예방 위주로 정책이 선회하면서 학교가 안일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쉽고요.

**최이선**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로 꼽히지만, 교내 상담실이 없고 전문상담교사도 배치돼 있지 않더군요. 사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성배** |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돼 있고,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민감한 중학교부터 먼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의 배치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해학생 처벌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강화한 후 지난해 7월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서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감되는 정책 만들어야... 학교전담경찰관제 만족도 높아**

**류기형** |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내 아이가 나쁜 아이로 비쳐질까봐 참여도 꺼리는 실정입니다. 모 중학교에서는 그룹별로 부모들이 원하는 날짜에 모여 자녀지도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학부모 대상 연수도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이선** | 아이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건 학기 초 일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 예방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오성배** |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조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관 1명이 약 10개 학교를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늘리면서 1인당 관할 학교 수를 줄여 더욱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류기형** | 예체능 교육 강화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보고 온 날은 아이가 감동에 젖어서 와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게 학교폭력이었구나.'라며 반성도 합니다. 연극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만들고 예술제 무대에 올리면서 학교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한 해 동안 3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했지만, 지난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나'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성배** | 유아 때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친구 괴롭히지 않기, 배려하기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이 이뤄져야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성배



하듯이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어울림 프로그램(학급단위 체험형 예방교육)은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역할극을 하거나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500개 교를 지원하며, 그 외에도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2,800여개 교, 청소년 경찰학교(경찰서에 설치된 체험장에서 과학수사,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수행)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체험을 통한 예체능 프로그램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연극, 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류기형** | 저희 지역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도 있고, 어깨동무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고개

를 푹 숙이며 걸던 아이들이 산에서 내려 올 때는 아버지 손을 잡고 웃으며 내려옵니다. 문제는 학교가 열정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줄어야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이선** | 학교폭력을 숨기는 게 문제 아닌가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선생님께 피해가 가기 때문인가요?

**오성배** | 병을 숨기면 치료를 할 수 없듯이 학교폭력도 감추려 하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제재를 가하기보다 오히려 보조하고 지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교사는 각종 포상이나 승진 시 가점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오성배** |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폭력을 수면 위로 드러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사나 학교에 강력한 책임을 물었을 때 생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 안착된 후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류기형** | 피해·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때 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일원화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진행자** |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리



아이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건 학기 초 일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 예방교육입니다.  
**최이선**

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성배**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경찰관,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관리자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치 결과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이 모두 수용하면 좋겠지만,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 처분에 한 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의 재심의 기관 이원화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안을 담은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할 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에 대한 처분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오성배** | 학교폭력은 사안마다 너무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유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

**류기형** | 학부모든 학생이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합니다. 아직도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최이선** | CCTV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는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담임교사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이와 가깝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배** | 이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의 큰 방향은 첫째로 CCTV나 학교전담경찰관 등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내면화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가해학생이 스스로 반성하며 다시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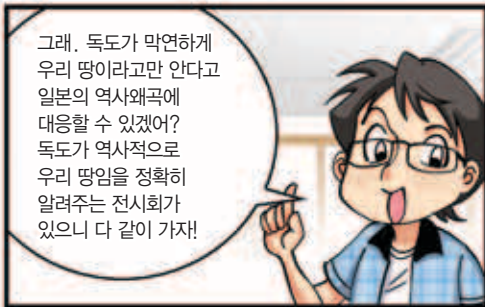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 중심에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확인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때 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류기형**





# 독도교육 강화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바로 알리기 위해 '독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교별로 학습내용과 시간을 단계별로 구분해 기본지식부터 역사, 지리, 정치적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우선적으로 초·고교에는 <독도 바로 알기>를, 중학교에는 <영원한 우리 땅 독도>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전국 주요 도시의 공공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통해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등도 진행한다.



##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낮춘다

A대학 출신 이 군은 2007년 1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 당시 대출금리가 '07년 1학기에는 6.59%, '08년 1학기에는 7.65%로 평균 7%대를 넘나들었다. 졸업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지만 아직 2천8백만 원 가량의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월 이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군의 경우, 전환대출 사업이 시행되어 기존 학자금대출을 현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리가 2.9% 수준으로 인하되어 연간 114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정부지원의 학자금 대출이자와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후속조치를 마련 중에 있으며, 학자금대출자에게 수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학자금 '고금리 → 저금리' 전환대출

금번 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과 '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고금리(6~7%)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2010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도입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 개정 시점(14.5.14)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이들로, 전환대출 수혜대상자는 약 55만 8천명 수준이며, 대출금액은 3조 4,423억 원으로 추정한다.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5.8%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함으로써 학자금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표 참조>. 수혜자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 원이 될

표. 연도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표

(단위 : %)

학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0	7.30	5.80	

교육부는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혜자 1인당 연간 평균 25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재학생 등에게는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취업 전까지는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신용유이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도입 시기)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각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개인별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30~50%(기초생활수급자 70%까지 감면)의 원금을 감면하여 신용유의자를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분할 상환 등을 신청하도록 하여 원만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6만 4천명, 3,207억 원 규모이며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원금감면 효과는 1인당 501만 원(40% 감면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든든학자금의 대출원리금 계산방식을 단리로 변경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낮췄다. 현행 든든학자금 대출 이자부과 방식이 상환유예기간(거치기간)에는 단리로 부과하고 상환기간(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이상 발생 시점)에는 복리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상환기간에도 이자를 단리로 부과하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출상환이 연체되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저소득층·미취업자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한편, 제도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출 대상자는 전환대출 실행시점에 연체된 원리금(원금+이자)은 전액 상환하여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매각에 따른 채무감면 대상은 '13.2월말 기준 시점에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의 성실 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에게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어 학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출시스템 구축, 전환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보도자료(개별통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으로 학자금대출자는 주소를 현행화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린다.

---

**Q 전환대출 대상자를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 대출로 한정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든든학자금 제도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 대상자의 경우 저소득층(소득 7분위 이하)은 소득 연계형 취업 후 학자금대출인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2010년 이후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든든학자금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금번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상품 종류(등록금, 생활비) 구분 없이 전환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저금리 전환대출은 현재 발생한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별도 신규 정책 사업으로 상품 종류(등록금·생활비) 구분 없이 대상 계좌를 현행 금리 수준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Q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홍보하는 '전환대출'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A**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전환대출'은 대부분 사금융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출로 재단에서 시행 예정인 저금리 전환대출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과거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은 오직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유념하여 향후 시행일이 확정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학자금 전환대출 등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A** 현재 전환대출 수혜자는 55만 8천명 규모이며,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1,42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예산은 연간 약 300억 원 소요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재정투입 대비 4~5배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장기연체자는 6만 4천명 규모로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원금감면 효과는 1인당 50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평소 이자부담이 컸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전환대출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미확정) 일정이 확정되면 시행 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현행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으로 대출상환 촉진과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대출 자격은 대출 실행시점까지의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해야만(원리금 상환 정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격과 신청절차를 다시 공지할 계획입니다. ②

### 박회장의 성공비결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종합진로정보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www.career.go.kr)





대학도 자동차 학과에 진학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학비를 덜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실무도 충분히 쌓았죠.



그리고, 10년 전에 제 회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자동차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죠.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아뇨! 종합진로정보망에서 상담을 받고, 힘든 순간에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꿈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 교육부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진로진학취업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1.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 [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을 운영하여 온라인 진로심리·적성검사, 진로상담 등 맞춤형 진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조기 연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상담전화 : 1599-2000)
3. '산학협력 선도 대학·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취업통계 고도화,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확충을 통해 대학을 창업 거점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행복교육’ 현장 소통의 길

교육부는 지난 달 학생 안전교육을 비롯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행복교육을 위해 된 서남수 장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1.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MOU 체결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 5월 26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교육 전문가 토론회

서남수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최한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를 2018년으로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 3.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교육부는 5월 28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갖고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남수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교육청, 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에 동참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 대표자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상징하는 불꽃을 학교 형태로 쌓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선포식’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다졌다.

### 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간담회

서남수 장관은 지난 5월 23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7일 수학과 교육과정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 후 영어, 과학, 사회 전문가 회의가 진행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 5.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회의

서남수 장관은 지난 5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비롯한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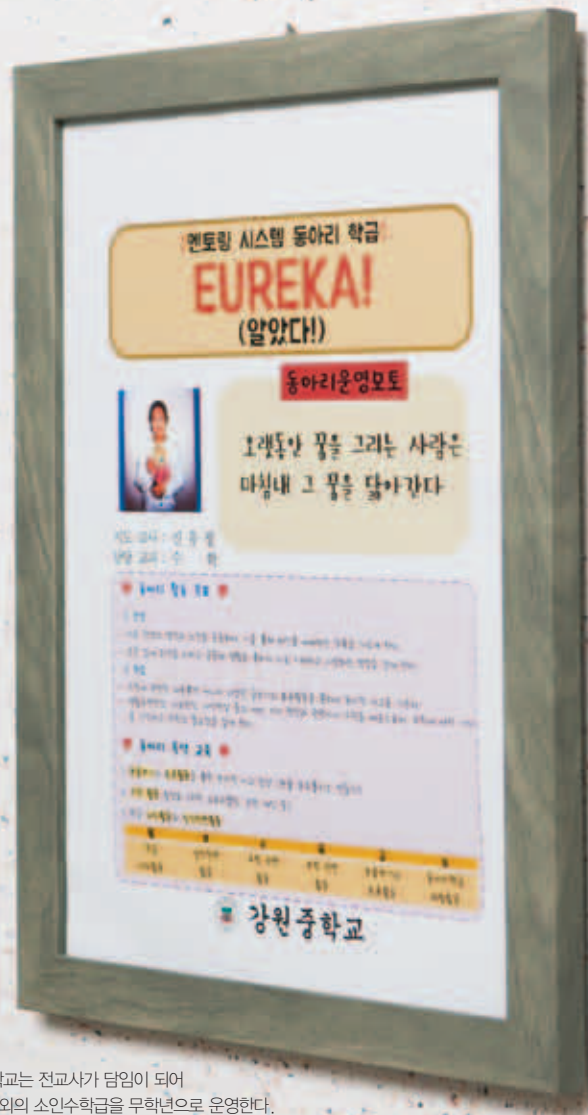




강원중학교

## 무학년 동아리학급 운영 ‘학교 안의 작은 학교’

무학년제 동아리학급을 운영 중인 강원중(교장 최종호)은 항상 학생들의 생기로 가득하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선택한 동아리학급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1인 1기 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26개의 특별한 동아리학급이 운영 중인 강원중을 들여다보자.



강원중학교는 전교사가 담임이 되어 20명 내외의 소인수학급을 무학년으로 운영한다.

강원중의 2교시는 조금 특별하다. 동아리학급 선생님과 20명 남짓한 각반 학생들의 의미있는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류인력'반에서는 김동규 교사의 지도아래 24명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화학약품을 다루며 실험에 한창이다. 오늘의 실험은 양금생성반응 실험. 김 교사로부터 화학약품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을 경청한 학생들은 조심스레 약품을 다루며 실험을 시작한다. 시약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며 필름지에 약품을 떨어뜨리는 손길에 조심 또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든 학생들은 서둘지 않으면서도 제법 노련하다. 반면, 이런 실험이 낯선 1학년생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필름지에 떨어뜨린 시약이 서로 엉겨 붙자 닦아내고, 다시 시약을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3학년생들로 구성된 '만류인력'반 학생들의 아침 풍경이다.



### 학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이래, 계속해서 김 교사와 '담임과 제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3년차에 들어선 학생에서부터 이제 3개월차인 1학년까지 무학년제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평소 과학을 좋아하는데, 선배들로부터 '만류인력'반이 과학실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학과 동시에 이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후배에게 가르쳐주기도 하며 재미있게 실험하고 있어요." 국과수 법의관이 꿈이라는 2학년 김서현 양이 과학실험이 마냥 즐거운 이유다.

'만류인력'반 외에도 이연옥 교사와 '이지-논술'반 학생들은 재미있는 토론수업을, 지인섭 교사와 '수친소'(저의 수학친구를 소개합니다)반 학생들은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맹거 스펀지 만들기 한창이다. '사고(思考)몽치'반에서는 김미연 교사와 학생들의 또래 상담이 한창 진행 중이며, '비상'반에서는 한혁 교사와 학생들이 세로토닌 드럼 연주에 구슬땀을 흘린다. 이렇듯 매일 2교시는 26개의 동아리에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즐거운 수업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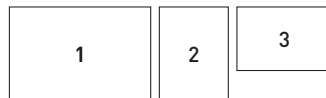
강원중의 동아리학급은 어느 학교의 동아리활동과 유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학년, 학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다. 나이로 구분한 학년과 물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1, 2, 3반이라는 학급 대신 1~3학년이 각각 7~9명씩 혼합된 26개의 동아리학급이 존재한다. 즉 동아리학급이란 전교사가 담임이 되어 20명 내외의 소인수학급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동아리활동을 학급으로 전환한 형태로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후배끼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교육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수업이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1교사 1교실제,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있는 강원중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학, 과학, 영어교과는 수준별 맞춤형 이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과는 행정적으로 구분한 학급별(학년당 6학급으로 구분)로 이동하며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동아리학급은 멘토링 시스템에 걸맞게 교사의 전공, 취미를 고려하여 개설하였다. 때문에 학술동아리, 문화예술동아리, 스포츠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신입생은 예비소집일에 동아리학급에 대해 소개하고 희망학급을 신청 받아 반을 편성하며,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임교





1. '만류인력'반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실험
2. 동아리학급별로 열리는 농구대회 리그전
3. 집중력 강화를 위한 기공체조 동아리 '도법자연반'

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동호 교감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의욕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데, 동아리 학급은 학생들이 각자의 취미나 특기를 고려해 선택한 학급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높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 선후배 멘토링으로 진로목표 세운다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한 동아리학급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 학생지도나 상담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일 것이다. '사고(思考)몽치'반 김미연 교사는 “매년 2/3 정도의 학생들과 같이 가요. 3년간 담임을 맡다보면 학생 개개인에게 세세한 관심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나 진로지도, 상담 등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만 입사나 진로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동아리학급에서는 모든 교사가 3학년 담임이 되어, 소수의 학생을 매우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게다가 학생들은 희망하는 동아리학급에서 짧게는 1년, 길게

는 3년간 담임교사로부터 연계하여 지도를 받고,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제 간, 선후배 간에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가능하다. 동아리부 변경한 교사는 “초기에는 선후배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친화력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진로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시험기간에는 후배들에게 전년도 시험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리학급은 학급의 구성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것이 학생 중심으로 이뤄진다. 동아리를 선택하고, 학급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동아리학급에서 기장은 일반학급의 회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학급에 학년별 기장이 한 명씩 있으며, 3학년 기장이 대표를 맡아 학급을 이끌어 나간다. 기장을 중심으로 학생회를 조직해 리

'비상' 동아리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세로토닌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더십 교육이 이뤄지는데, 담임이 바쁘거나 부재중 일 때 활동이 중단된다거나 담임중심의 보여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의견을 정확하고 빠르게 수용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중심의 동아리 학급 활동이 가능한 이유다. 교사는 동아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한다.



### 학급 구성에서 평가까지 학생 중심으로

동아리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물리적인 공간이다. 강원중은 건립 초기부터 1교사1교실제, 전교사담임제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배치했다. 모든 교사가 자기 교실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교실은 동아리실, 담임교사실, 교재연구실, 교과협의실, 교과전담교실 등의 다양한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특히 강원중은 동아리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어 전인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봉암축제'는 3일 동안 학생주도의 다채로운 축제마당이다. 모든 행사는 동아리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 진행된다. 봉암축제 프로그램 중에는 동아리 발표회가 있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동아리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동아리 화합의 장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선생님, 학부모, 선후배 등에게 공개하고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기도 한다.

동아리별로 다양한 리더십대회도 진행한다. 동아리 농구대회는 26개 동아리학급이 모두 참여하여 4월부터 거의 매일 리그전이 열린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 선후배, 친구 간의 교류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뤄진다. 10월경에는 결

승전이 열리는데, 상위에 입상한 동아리에게는 동아리활동 지원금이 수여된다. 또한 학생들은 동아리별로 자생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10월경 어휘력 경시대회, 스피치대회, 토론대회 등의 리더십대회에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기도 한다. 이 교감은 "각종 리더십대회에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기도 한다. 이 교감은 "각종 리더십대회에 학생들이 서로 간의 우정과 추억을 만들고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사에게 동아리학급은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사제 간, 선후배 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며 교사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자발성이 동아리학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동아리학급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이 따릅니다. 학교 안의 작은 학교가 운영되는 셈이죠. 과거에는 모든 반이 똑같았다면, 지금은 26개 학급의 이미지와 색이 모두 다르며,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교사의 설명이다.

강원중은 1999년 동아리학급제를 시행한 이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학교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매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학생들의 변화가 동아리학급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②

##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

#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는 지구의 세계기후 또는 지역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데,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 기간 동안 대기의 평균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특정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건조화가 진행되면서 가뭄이 심해지기도 하고, 태풍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잦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장기간 가뭄으로 사막화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의 원인 때문인 것이다.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부산지역 중·고교 과학교사들의 모임이다. 2010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과학교사들 위주로 시작했던 '부산기후변화연구모임'을 2013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를 결성하였다. 부산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확산, 그리고 새로운 지식 보급을 위한 녹색성장마인드 제고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지난해 '지역기후변화의 이해'를 주제로 기후전문가 변희봉 교수(부경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온라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했다. 또 포항기상대 견학을 통해 고층관측 체험과 호미곶 등대에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견학 등 기상·기후체험을 실시했다. 특히 아카데미는 카페(<http://cafe.daum.net/busanclimate>)를 활용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관련 과학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카페에 올리면 교사들이 카페를 통해 이 자료를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도 1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부산지역 기후변화 연구보고서와 기후전문가의 다양한 PPT자료(지역기후변화의 이해, 부산기후의 자원성과 위험성 등) 및 기후변화교과서(도요새)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는 '대국민기상교육 기상·기후과학 과정'을 진

1. 2. 지구의 기후변화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 회원들



행한다. 새로운 지식 보급을 위한 녹색성장마인드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지도 활동 발굴 및 자료공유, 기상청업무에 대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현장탐방을 통한 기상·기후과학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미래 기후변화 대응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기후센터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6월 중순경 기후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비롯해 조만간 '기후변화 교구 아이디어 발굴 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후변화관련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탐방도 부산지방기상청을 비롯한 APC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상1호 해양관측선박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아카데미 카페를 운영 중인 정태신 교육지도관(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은 "초창기 교사 위주의 모임 때와 달리 부산 지방기상청과 같이 공동협력으로 모임을 운영하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산기후변화아카데미의 역할과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건표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

## “어렵고 힘든 길이 나의 길”

이건표 교장이 걸어 온 지난 40년의 교직생활을 되짚어 보면, 헌신하는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한 교육자의 고민과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 유독 소외된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눈길을 보냈던 그였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매번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하길 자청한 건 그의 굳건한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목이 울창한 교정으로 가문 1등 공신은 이건표 교장이다. 그는 매주 금요일 용달차를 끌고 약재시장에서 사료로 쓸 한약재 찌꺼기를 실어 나른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호국영령 앞에 맹세합니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서서 하는 맹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견표(60)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말이면 교내 모든 교사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이유다.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여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장이 교사들과 연례행사로 해 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헌신은 좋은 교사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내 몸 바쳐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교사’라고 할 수 있지요. 온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견표 교장이 걸어 온 지난 40년의 교직생활을 되짚어 보면, 헌신하는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한 교육자의 고민과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 유독 소외된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눈길을 보냈던 그였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매번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 하길 자청한 건 그의 굳건한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공부하는 학생선수’ 기틀 마련

지난 40년의 교직생활 가운데 30년은 운동지도를 했을 정도로 그는 ‘운동예찬론자’다. 대학시절 2년간 핸드볼 선수로 활동하면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튼튼해진다는 진리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 교육현장에서 학생선수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주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아이는 1천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성장하면서 운동 기량이 향상되지 못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사회로 내던져진 아이들은 눈앞이 캄캄해 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요.”

운동선수로서 꿈이 좌절되면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는 제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았다. 매일 운동이 끝나고 3시간씩 방과후 학교를 연 그는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하릴없이 천장만 바라보던 아이는 체육고로 진학해 전교 2등에 올랐다. 비록 운동선수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는 운동부 아이들을 전원 우등생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경험은 대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로 근무할 때 ‘운동선수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이제는 전국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자생적 장학회 ‘운사모’ 창립… 장학금 1억 원 모아 돕기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운동선수들은 그의 또 다른 걱정거리였다. 소년체전 담당 장학사로 근무할 때는 “이 학생은 뒷바라지만 잘하면 장래 훌륭한 선수가 될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2009년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3~4명의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운사모)’을 만들게 된 건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서다. ‘만원의 행복’라 불리는 운사모는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걷어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370여 명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올 3월까지 지급한 총 장학금만 1억 원을 넘어섰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최연소 카누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민과 ‘소녀 공사’로 불리며 양궁에서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단 곽예지, 전국체전에서 양궁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박소희 선수도 운사모가 있기에 가능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활하는 아이도 있고, 수양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뽑히면 한 달에 20만 원씩 연간 240만을 지원하는데, 한 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점

**‘만원의 행복’라 불리는 운사모는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걷어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370여 명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올 3월까지 지급한 총 장학금만 1억 원을 넘어섰다.**

이 다른 장학금과 다르지요. 4명에서 시작해 올해는 대전지역 학생선수 15명을 지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2의 박지성, 김연아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한 운동선수들은 “운사모가 나에게서 ‘희망의 끈’이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이들이 운사모의 회원이 되어 후배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학생선수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소외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

“여건이 가장 어려운 학교는 어디가요?”

교장 부임을 앞두고 그가 매번 묻는 질문은 단 하나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주문이다.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남들은 가길 꺼려하는 학교들로 줄을 세웠다. 부임지마다 그가 유독 관심을 기울인 건 소외된 아이들이다. 학습부진아, 다문화가정 아이, 장애학생들은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히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1/3에 달하는 산내초에 부임했을 때는 다문화학부모회를 만들어 자긍심을 키우는 한편, 학습부진아 노력에 힘쓴 결과 단 한명의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로 이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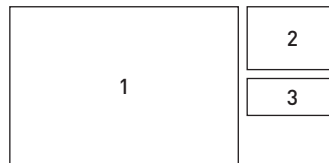
지난해 부임한 삼성초 또한 103년 전통의 유서 깊은 학교이지만, 주변 지역이 구도심이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런 학교일수록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중요했다. 학교 담장을 두르는 120개의 태극기, 교기, 독도기를 꽂은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내 2층에는 문화광장을 만들고 아이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매년 9번씩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점심시간 20분간 식당 모니터를 통해 발표 모습이 중계돼 아이들에게는 고대되는 순간이다.

“한 반에만 기출하는 아이들 8명이 있었어요. 학기 중에 교장실 옆으로 학급을 옮기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난 너희 같이 고집 센 아이들이 좋다. 너희처럼 고집 있는 사람이 위인이 된다.’며 800만 원을 들여 악기를 사주고, 그룹사운드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모두 무사히 졸업해 중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요.”

‘가난의 대를 끊자’는 목표로 중국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중국어 몰입교육,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자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1. 삼성초등학교 운동선수들과 교정을 걷는 이견표 교장
2. 본교 출신 대통령의 기념식수 예정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이 교장. 그는 언젠가 기념식수를 심을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으며 비석을 세웠다.
3. 그가 부임한 후 수상한 학교 표창들

### 교사는 온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

그가 부임한 학교들은 이제 '스타학교'로 거듭났다. 연간 기관 표창을 6개를 받기도 하는 등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 “한 달이 지나면 학부모가 변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학생이 변하며, 2년째가 되면 교사가 변한다.”는 그는 모두의 힘이 모여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육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장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열정과 통합, 개선, 그리고 끈기를 꼽고 싶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든 교직원들과 힘을 합쳐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야 하지요. 특히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엎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결국은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바라는 건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교사로서 온 몸을 던지는 사람을 찾고 싶었다.”는 그는 교장으로서 헌신하는 교육자를 찾아 적극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 이미란 흥성여중 수학교사의 ‘인성중심 수업’ 또래끼리 서로서로 성장... 나와 너가 아닌 ‘우리’ 배운다

인성중심 수업의 핵심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경쟁심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주위 친구들의 것을 볼 수 있고, 보여주고, 묻고, 답변하며 서로 협동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미란 흥성여중 교사는 수학수업을 통해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성장하는 수업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식의 값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짝을 짝 지어 함께 문제의 답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흥성여중 1학년 9반. ‘다 함께 잘하자’는 구호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미란 교사는 문제를 제시하며 짝 모듬활동을 제안한다. 자연스럽게 두 명씩 짝을 이룬 학생들은 스스로 이야기 나누며 문제를 풀어간다. 간간히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문제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설명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답이 다른데 풀이과정이 어떻게 다르지?”

“음수의 곱은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아~ 난 음수의 곱이 헛갈려.”

학생들은 짝수와 홀수 문항을 나눠 교대로 문제를 풀며, 한 사람이 푸는 동안 말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푸는 것을 보고 들으며 질문을 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익숙한 듯 친구에게 알려주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올해 초 모듬활동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바뀐 수업 모습이다.

“모듬원이 반듯이 문제를 같이 풀도록 구조를 지정하고 말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인성중심 수업의 핵심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경쟁심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주위 친구들의 것을 볼 수 있고, 보여주고, 묻고, 답변하며 서로 협동하는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 ‘협동’, ‘표현’ 이 세 가지가 제 수업을 설명하는 키워드이지요.”

이미란 교사는 ‘인성중심 수업’에서야 말로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어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모듬별 또래 활동으로 소통과 공감 배워

심화문제에서는 학생들이 4명씩 한 조를 구성한다. 한 장의 문제지에 풀이과정을 같이 완성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자 진지한 표정으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칠판에 모듬 점수판을 그려 놓고 제비뽑기(1, 2, 3, 4)로 선택된 학생이 앞으로 나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4번 정도의 제비뽑기로 모듬 점수를 합산하게 된다. 모듬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제를 해결한 모듬의 한 명이 나서서 다른 모듬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모습도 엿보인다. 자기 모듬 안에서 협력해 주어진 문제를 풀고, 다른 한 명이 다른 모듬에 가서 자신의 모듬에서 푼 것을 도와주는 구조를 만든 덕분(하나 가고 셋 남기 활동).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가 격려되는 수업 탓에 오히려 서로 나서서 도와주는 분위기다.

“모듬은 자신이 선택해 구성합니다.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듬별로 자유롭게 구성해도 수준차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간혹 뒤처지는 모듬이 있어도 학급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수업에 무리는 없습니다. 모듬은 월 1회 자리 배치를 변경하는데, 학기 초에는 모듬세우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좌석 배치부터 모듬 구성, 모듬장 선정, 벌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선택한다. 모듬 합산 점수가 최하위인 조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데, 이날 풀이가 틀린 1조와 3조의 벌칙은 친구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기. 벌칙을 받은 모듬원이 친구들을 껴안으며 ‘사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각 모둠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며, 모둠 학생들이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둠세우기를 하여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둠원이 서로 논의하며 배부된 학습지를 함께 작성한다.







이 교사는 수업이 변화 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향상됐다고 전한다. “또래 가르치기 학습효과가 가장 높다.”는 그는 “작은 목소리라도 잘 듣고 반응해 주면서 학생들이 교사와 신뢰도 쌓고 있다.”고 덧붙인다. 교내 수업연구동아리 ‘짱짱쌤’은 이 교사의 수업이 탄생하게 된 산실이다. 23명의 범교과 교사들이 격주 화요일마다 모여 자유롭게 수업에 대해 토론하는 사이 수업의 변화를 조금씩 이끌게 된 것. 이는 17년 동안 습관처럼 굳어 버린 수업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해는 270시간에 걸쳐 연수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교사는 “수석교사로서 동료교사들과 교내 수업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

### 모듬세우기 활동

- ▶ **모듬 이름 짓기** :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모듬 이름을 지어서 소속감을 준다.
- ▶ **그림카드** : 그림카드 50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모듬원이 각자 2장씩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을 고르게 한다. 돌아가며 선택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한다.
- ▶ **컵 난타** : 개인당 종이컵 2개를 양손에 잡고, 모듬원이 서로 동작과 리듬을 만들어 연주하는 활동이다. 음악에 맞춰 안무를 짜고 난타를 연주하는 동안 모듬원들은 서로 어울리는 경험을 한다.
- ▶ **종이탑 쌓기** : 모듬별 A4 용지 15장과 투명테이프만을 이용해 종이탑을 쌓는다. 모듬별로 서로 전략을 짜고 역할을 분담하며, 손을 대지 않고 10초간 쓰러지지 않는 팀에는 보상을 한다. 또한 가장 높이 쌓는 모듬을 선발해 격려한다.

### 표. 수업 실천 사례

주제	수업 실천 내용	인성 요소
신비로운 수의 역사	협동학습(4인 모듬), 전시장 구조(하나 가고 셋 남기)-세상과 만나게 하자	소통, 협동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철학자의 생각을 더듬어 세상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글쓰기로 나와 만나자	정직, 책임, 공감
도형과 놀자	원의 자취를 통해 아름다운 도형의 세상과 만나고 자신을 표현해 보자	소통, 공감
종이탑 높이 쌓기	토론과 활동이 있는 협동학습	책임, 협동, 소통
제비뽑기	협동학습을 하고 제비로 모듬원 누가 뽑혀도 풀 수 있도록 또래가르치기	책임, 정직, 협동
모듬 빙고	모듬원이 각자 문제를 풀고, 서로 점검해주어 빙고판이 완성되게 하는 소통과 협동	책임, 정직, 협동
둘이 하나	2인 짝모듬에 학습지 1장을주고, 홀수·짝수 문제를 같이 풀며 협동학습	책임, 정직, 협동
칠교 놀이	개별적 조작 활동, 4인 협동학습으로 둘레 길이 구하기 프로젝트	정직, 소통, 협동
기하로 푸는 인수분해	교구를 활용하여 조작활동을 하고, 4인 모듬 협동학습으로 대수막대 인수분해	소통, 배려, 협동
인수분해 도미노	인수분해 카드를 다항식과 연결하는 협동	책임, 협동, 소통
너를 칭찬한다	인수분해와 다항식을 연결하고 칭찬 메세지를 만드는 소통이 있는 협동학습	공감, 배려, 소통
하나라고 셋 남기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또래가르치기로 설명이와 배우는 학생 모두 도움을 경험	책임, 배려, 소통
수학과 음악의 만남	수리논술 문장을 소통으로 해결하고 실제 만들기하는 것을 협동하는 활동	책임, 협동, 소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교육평가 실현에 무게”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가.’  
지난 4월 취임한 김성훈(58·동국대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면서 ‘교육다운 평가’를 화두처럼 안고 살아왔다. 그가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분야를 아우르는 KICE의 수장으로 오게 된 데에도 국비유학생으로서 진 국가의 ‘빛’을 되갚아야 한다는 부채감도 한몫했다. 그는 ‘교육다운’을 위해서는 한줄 세우기식이나 서열정보만을 주는 교육평가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신 교육적 가치가 높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개발로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추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Q** KICE의 수장으로서는 각오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KICE가 개원한 지 16년째입니다. 1998년 개원 이후 그 동안 학교교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사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KICE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로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KICE는 수능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잘 이끌어왔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KICE 원장으로 오게 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KICE의 주요 연구와 사업들이 정책으로 결정되고 또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 또한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

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육평가를 전공했지만 평가 그 자체로만 기능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등 교육의 여러 측면과 맞물려 함께 작용하고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그 역할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와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닌, 사람을 참되게 하는 진정한 교육의 큰 틀 안에서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학습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Q**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챙겨나갈 사업은 무엇인가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진



단·형성 평가에 역점을 두고 KICE를 글로벌 기관으로 키워나가려 합니다. 그동안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국내 이슈에 많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는 것은 곧 우리 기관 스스로의 발전과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국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해 어떤 경영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입니다. 이는 후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변화의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아직 통합교육과정이 무엇이라는 그림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통합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구체화되어야 하고, 각 교과 교육과정은 전체적 하나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및 교과서 등은 교실에서 수업과 평가를 안내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전체적 하나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당위는 아직 숙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위와 같은 숙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자는 교육과정 및 평가의 싱크탱크인 동시에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책기관인 KICE 외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축적해온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전문성에 터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 수능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수능체제 개선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KICE는 수능의 안정적인 출제와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유지·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 등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능 출제와 관리 업무에서 부적절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진단하여 보완하는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방침은 이제까지의 방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단 몇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쉬운 통합 영어와 한국사 시험이 새로이 추가된 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2015학년도 수능부터 국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통합형 영어를 쉽게 출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 도입되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누구나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하려고 합니다.

**Q 재임 중에 꼭 달성하시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재임기간동안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진단적 및 형성적 평가의 실천, KICE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에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제까지 KICE가 견지해온 기관의 존재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케 하는 것은 KICE의 역량이 달려있습니다. 저는 전문조직체로서의 KICE의 생명력을 더하

게 하고 싶습니다. 점차 가속되는 미래로의 사회 변화, 그 변화에 맞추어진 현 정부의 '창의교육', 그리고 교육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및 관련 정책들은 우리 KICE가 새로이 적응해야 할 환경들입니다. 그리고 KICE는 점차 가속적이고 복잡하게 변화할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할 하나의 전문적 생명체입니다. KICE가 그런 격량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힘은 하나로 결집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구조적 변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KICE의 그러한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교육평가 전문가로 꼽히는 김성훈 원장은 우리 교육의 큰 변화와 발전과정마다 함께해 왔다. 교과서 검정체제 타당성 진단 연구와 대규모 학업성취자료 분석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법학직성 시험(LEET),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참여해 왔고, 2010학년도에는 수능 채점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에너지는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비롯된다. 서로 공감하고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믿는 김 원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곳이 깨달음의 세계이다)'이라는 말을 휴대폰에 늘 넣어놓고 다닌다.

새롭게 주인 된 자리에 선 김성훈 원장이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가?'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낼지 KICE의 앞날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Q**

## 철도박물관 & 철도안전체험센터

# 100년의 역사에서 철도의 '어제-오늘-내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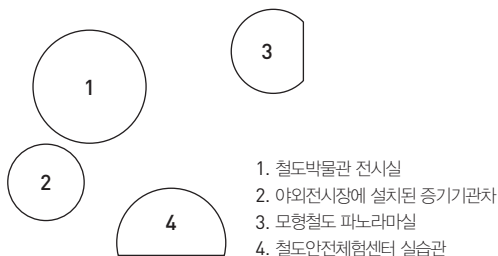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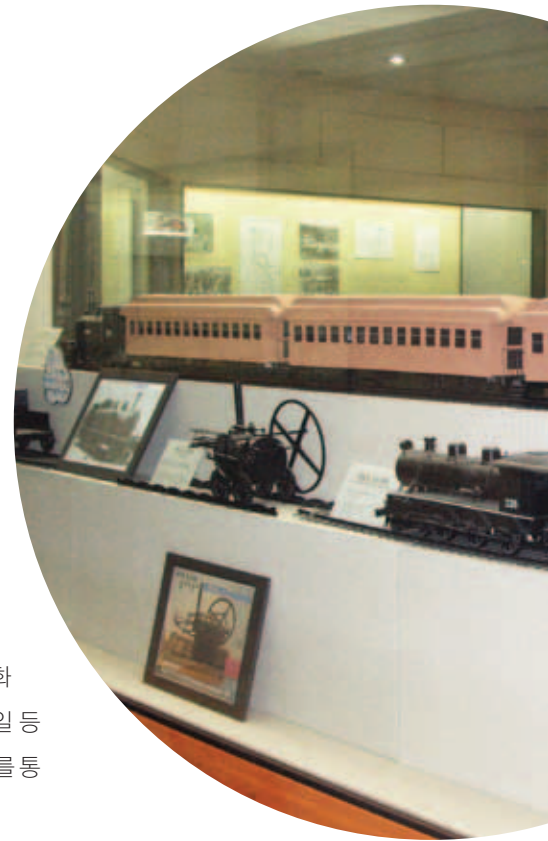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와 발전과정이 궁금한 학생이라면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에 위치한 철도박물관을 둘러보자. 1899년부터 시작된 철도는 그 발전과정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 대한제국 현실 속에서 철도는 국가발전을 위한 근대교통시설이었으며, 전쟁으로 피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철도박물관에는 100여 년의 철도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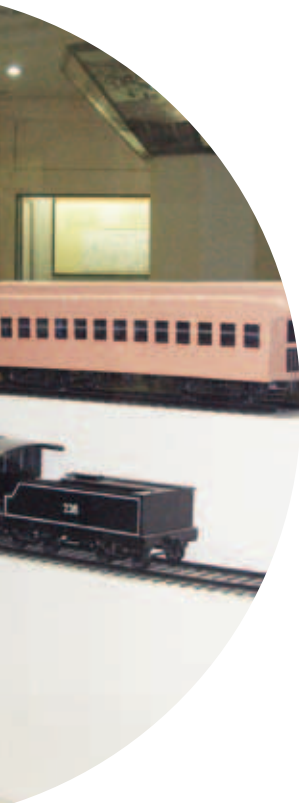
### 5천여 점의 철도 유물과 자료 전시 중

철도교육연구단지 내 28,082m<sup>2</sup>의 부지에 조성된 철도박물관은 본관 1, 2층에 역사실, 차량실, 모형철도 파노라마실, 전기신호통신실, 미래철도실 등의 전시실과 야외전시장에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옛날 증기기관차, 초대 대통령전용귀빈객차, 우리나라 최초 경인철도에서 사용했던 레일 등 각종 철도유물과 자료 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초창기 철도역사와 발전과정을 실물과 각종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철도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산교육장인 셈이다.

철도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나무와 꽃들로 어우러진 정원 사이사이로 거대하게 전시된 열차와 만나게 된다. 1955년 개조되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용 객차로 이용되던 대통령전용귀빈객차와 1971년까지 특급 여객열차로 청량리-부산 등 전국의 주요 간선철도를 달렸던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도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채, 이곳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협궤 증기기관차 13호 등이 전시되어 있다.

본관 중앙에는 1897년에 촬영한 경인철도기공식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기공식 참석자들이 당시 명성황후 국상으로 백색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관 1층 '역사실'에는 철도건설 이전의 교통수단과 세계 최초 증기기관차, 우리나라 최초 증기기관차 등의 모형과 경인철도부설 계약서와 도면, 당시 사용된 레일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이 기관사가 되어 열차





를 운전해보며 속도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열차운전체험실'이 있으며, '모형철도 파노라마실'에서는 비둘기호, 화물열차,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광역전철전동차, KTX 등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모형철도 파노라마실'에서는 단체관람객을 위해 수시로 해설을 진행하며, 열차마다 서로 다른 속도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달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전기신호통신실, 시설보선실, 운수운전실, 미래철도실 등이 있다. 전기신호통신실에는 각종 철도신호설비를 비롯해 선로전화기와 레바, 옛날에 사용했던 자석식 및 공전식 전화기와 교환대, 자동교환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운수운전실에는 옛날 기차표와 기차표 인쇄기, 부산에서 중국의 단둥까지 열차 운행 시 사용했던 다이어그램, 각종 전회기와 전호등 등이 전시되어 있다. 철도박물관의 입장료는 성인 2천 원, 유아~청소년 천 원이며, 단체관람객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신청(070-4422-0906)을 하면 해설사의 설명을 함께 들을 수 있다.



### 박물관-안전체험센터-기술연구원으로 이어지는 '미래기차'

철도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 중인 '의왕발 미래기차' 프로그램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철도박물관과 철도인재개발원(철도안전체험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홍보관)으로 이어지는 코스체험을 통해 철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철도안전체험센터는 철도인재개발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활인정신을 바탕으로 초대, 공감, 기억, 체험, 실천, 소통, 소망 등 7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는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활용되지만, 교육이 없을 때는 '의왕발 미래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인·청소년에게도 철도안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철도안전체험센터 곳곳에서는 철도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국내외 철도사고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철도사고기록관은 1960년대부터 국내외 철도사고 사진자료를, 사고영상체험관은 전차선감전, 탈선, 충돌 등 철도사고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철도사고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철도안전체험센터에서는 추락사고 등 각종 철도사고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 추락 체험은 안전모와 안전장치를 한 후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조작에 따라 발판이 열리면, 안전 스펀지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모든 안전장치를 한 후에 이뤄지는 체험이지만, 2m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또한 실습 관에는 철도안전 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협착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첨단 철도시스템과 미래의 교통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홍보관에서는 철도과학기술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개발현황과 첨단 철도과학기술의 오늘과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의왕발 미래기차'는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왕문화원(031-456-4994)과 의왕시청 문화체육과(031-345-2532)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 평생교육의 선진국, 스웨덴

노벨상의 나라인 스웨덴은 교육을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의무교육과 대학교육을 마치면 사회로 진출하여 실무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지적 경험을 완성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7세부터 16세에 이르는 의무교육과 16~19세 사이의 고등교육, 그 이상의 대학교육까지 스웨덴인이거나 스위스인일 경우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기금을 통해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그만큼 자신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스웨덴 교육 환경의 특징으로 잘 갖추어진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시스템의 전통을 들 수 있다. 최근 스웨덴 정부 조사에 따르면 24~60세 사이의 스웨덴 인구의 15%가 의무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이다. 46%는 고등교육까지만 완수하였다. 14%는 3년 과정 이하의 대학교육을 완성한 사람들이며 22%가 3년 과정 이상의 대학교육을 완수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그만큼 스웨덴 국민 중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무,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직 널리 분포해 있고 이들도 그

러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덴에는 자발적인 성인문화 운동인 스터디 서클(Study Circle)이 이미 1890년대부터 형성되어 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루지 못한 학위 취득을 위한 성인교육 그리고 자발적인 지식 추구 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는 성인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성인교육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성인교육

스웨덴 교육부는 2010년에는 신 교육법(The New Education Act)을, 2011년에는 성인교육법(The Ordinance of Adult Education)을 공포 발효하면서 이미 195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성인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된다. 일반 성인교육(Komvux), 특수 성인교육(Särvux), 그리고 이민자 스웨덴어 교육(SFI)이 그것이다. 이 과정들은 모두 정부



**스웨덴에서는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지적 경험을 완성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주도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성인들은 지원과 입학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서(Certificate)를 받는다. 이 교육과정들이 내세우는 철학은 '지식', '기술', 그리고 '경쟁력' 배양이다.

일반 성인교육(Komvux)은 1968년 정부 교육법 발효로 시행되었다. 이 교육의 취지는 당시까지의 스웨덴 교육이 너무 인문사회 분야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 중심 교육을 강조하자는 데 있었다. 일반 성인교육 과정은 기초 과정과 2차 과정이 있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정규교과과정(16세 이하 교육)에서 제공하는 기술 중심의 지식을 전수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성인들은 해당되는 의무교육 이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2차 과정에서는 19세까지의 고등교육 과정에 준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성인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이 과정 이수자는 고등교육 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나이에 사정상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 기술, 그리고 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다.

특수 성인교육(Särvux) 과정도 일반 성

인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기초 과정과 2차 과정으로 나뉜다. 이 특수 성인교육 과정은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습득 수준에 맞추어서 기초 과정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둔다.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은 스웨덴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인 스웨덴어를 정부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성인 학생의 언어 수준을 토대로 반이 배정되며 이 과정을 이수를 통해서 스웨덴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성인 대상으로 재교육 기회 활발**

이러한 주요 성인교육 과정의 배경에는 스웨덴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철학이 깔려 있다. 이는 스웨덴 국민들이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로 경쟁력을 지녀서 사회의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그만큼 지역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공교육 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

영되므로 그 혜택은 결국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성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스웨덴에는 정부 주도의 성인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도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범위를 더 넓혀서 직업에 응용 가능한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관련된 예술, 음악, 연극, 항공, 예술 작품이나 아트 크래프트 제작, 미디어 기술 등도 교육한다. 이 사설 학원시설들도 스웨덴의 정부 산하 성인교육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지식문화 운동인 스터디 서클까지 스웨덴의 교육 환경을 보면 성인들이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상 변화하는 응용 지식의 경우 평생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듯이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사회가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보다 다양한 정부 주도의 성인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 성인 지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학위 취득이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면 취업이나 재취업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A. 콜 박사

## “관용과 다양성에 기반한 역사교육 필요”

한국 역사교육의 문제와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A. 콜 박사는 ‘관용’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역사교육이 필요하도록 강조한다. 주한미국대사관 Speaker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콜 박사는 폭력적인 분쟁이나 정부 탄압 후에 따르는 장기적 화해와 인권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 교육개혁과 역사적 정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미국평화연구소는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5.18기념관에서 특강을 진행했으며, 북한이탈 학생과 교사, 서울대 역사교육과 학생 등 예비 교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지난 5월 2일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마지막 날, <행복한 교육>이 콜 박사와 만났다.

**Q** 한국 방문은 처음인가. 공식 일정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  
“2008년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이번이 두 번째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광주5.18기념관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교사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 교사는 존중받는 직업이며, 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여러 사범대 교수와 학생을 만나보고,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Q**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역사적으로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었다. 역사교육에 이념적 논란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국은 가능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 기록에 적어도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





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아이들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교수법과 교실분위기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분노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Q 역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역사나 역사교육에 객관적인 접근방식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단순히 역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Q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역사교육에서 유의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역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용보다 교수법이다.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만약 학생들 간에 이견이 존재해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제징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터넷상에 마구 퍼트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만났을 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고, 편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의 역사교사라면 관용적인 태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은 다 그래’, ‘일본 사람은 다 그래’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면 안 될 것이다.”

**Q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으나 청소년들의 부족한 역사의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학생들이 역사교과를 지루하게 생각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전투나 왕의 이름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은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보다 전반적인 개념이나 사상의 이해, 스스로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옛날 영화나 신문, 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대

학입시가 이러한 시도를 어렵게 하긴 하지만, 시험에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는 등 시험이 바뀌어야 한다.”

**Q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일한국에 대비해 역사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겠나.**

“북한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유지하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사회가 완전히 실패는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은 불쌍한 피해자이고 탈북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로 가르치면 통일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시스템이 비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긍심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혐오하게 되면, 깊은 증오심과 분노를 갖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독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동독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 독일의 경우보다 북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해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더 넓게 보자면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Q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1%에 육박한 5만 명을 넘어 섰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한 역사교육의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방식은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는 적대국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서는 모두 사라졌고, 최근 미국에서도 사라졌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이고, 타 집단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타 집단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는 학생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Q 한국의 역사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균형 잡힌 인간을 길러내는데 역사교육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한국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잘 하지만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해 나가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해밀/두드림 프로그램’

지난 2월 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누적된 학업중단 청소년이 2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업중단 학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학업중단 숙려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밀/두드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생겨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2007년부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물적, 정신적 지원을 목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해밀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 학업동기 부여, 학습코칭, 멘토링 등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검정고시 공부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학업부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두드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직업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껏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왜 무료로 먼저 권하려 오느냐, 나중에 돈 달라는 사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왜 상담을 받아야 하죠? 저는 그렇게 심각한 학생이 아닌데요?’라는 반응까지,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초기에는 학교, 지역교육청, 동주민센터의 협조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천대를 받는 건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선생님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거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뒷바라지 하고 계셨습니다. 프로그램도 해를 거듭하며 개선되었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



1. 2. 해밀/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록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폭넓게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신중히 생각해야만 한다.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습은 계속할 수 있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도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가 바뀌길 바라면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밀/두드림 학습지원단 사이트 [www.dodreamhaemil.or.kr](http://www.dodreamhaemil.or.kr))

글 | 김해리 명예기자(이화여대 대학생)

## 다문화교육, 학부모 재능기부로!

“싸 왓 디 크랍(카)”

대전성남초등학교(교장 이명진) 5학년 3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는 태국의 인사말입니다. 이 학급에는 어머니가 태국인, 아버지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 학생(박현수 군)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 가정 친구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박현수 군의 어머니 박 플론치 씨가 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수업은 태국의 위치, 전통의상, 명절, 언어, 역사 명소, 유물, 전통놀이, 전통악기, 전통춤 등을 배우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태국의 전통놀이를 해보고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교실 안에서 태국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태국을 그저 먼 나라로 생각했지만, 이번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해 내 친구가 태어난 나라와 그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예전에 태국여행을 갔을 때는 국기도 잘 몰랐는데,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시니 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교실 안에서 태국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수업을 해 주신 학부모 박 플론치 씨는 “현수(아들) 친구들이 나라(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수 군은 “친구들과 태국 전통놀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라며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문화, 그리고 친구들에게 태국에 대해 알려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이번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의미를 마음으로 더 깊이 새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단일민족, 한민족을 강조한 교육은 아이들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세계시민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교 현



1. 태국 문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박 플론치 씨
2.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태국 문화를 체험한 아이들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성 교육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②

글 | 함지원 명예기자(대전성남초 교사)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 아버지의 날 '심폐소생술교육(국미경) / 병천초, 내 고장 유적지에서 인성교육을 실천(권상기) / 차동초의 다문화교육 이야기, 인성이 자라는 보리밭(김종우) / '애들아 밥 먹자' 운동, 네임클로버로 다지는 인성교육, 로망스 다리에서 펼쳐는 '작은 음악회(김철수) / 전라남도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 2014 에너지·기후변화교육 지도교사 연수(손경애) / 교환학생 학교현장 생(生)생(生) 인터뷰(양지훈) / 안전교육으로 건강한 학교를 꿈꾸며(이규배) / 가이츠, 지진·해일 대피훈련(이하성) / 삼성꿈장학재단의 멘토링 꿈장학사업(정수진) / 'DREAM, 스키어링'팀의 꿈과 미래를 향한 도전(한명숙)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 → 명예기자 리포트



## 학교 시설 안전 점검에 만전

나승일 차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각 급 학교를 방문하며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했다.

나 차관은 “학생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전 6사와 MOU를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학교 시설물 안전 꼼꼼하게 점검... 또 점검...

나승일 차관은 지난 5월 10일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을 위해 충북 청원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잇따라 오창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학생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의 행보를 이어갔다.

### 대전성천초, “초등돌봄 교실 편안 한가요?”

나승일 차관은 5월 19일 대전성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 교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나 차관은 교내 시설을 둘러보며 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 체결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5월 26일 발전6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와 협력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한 '2014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는 발전 6사 및 협력 중소기업 50개사가 기업을 홍보하고 특성화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구직상담 및 채용이 이루어졌다. 한편, 박람회 개최에 앞서 교육부는 정부대표로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전 6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논단  
청소년 문화와 생활지도

- 청소년 문화의 속성과 위상
- 창조적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접근
- 청소년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 청소년 문화의 속성과 위상

글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 연구위원

1904년 스탠리 홀(G.S.Hall)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정의한 이후, 청소년기에 대한 이미지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으로 대표되어 왔다. 청소년 문화 역시 기성세대가 보기에 무모한 이상주의와 강박적인 집단주의로 알려져 있다. 과연 실제 청소년기와 청소년 문화가 이런 고정관념과 일치할까? 이에 답하려면 우선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 '집단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는 청소년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서 사춘기에서 시작해서 성인기에 끝난다. 이 시기에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한다. 이 변화는 내적으로는 자의식(Self Consciousness)의 각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자의식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같은 오류를 겪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이를 점차 수정해 가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외적으로는 신체상(Body Image)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마의 16세' 시기이다. 아동기에 누구나 누리던 동안성의 귀여움은 사라지고 성인기의 얼굴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신체상은 자아정체감의 매우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신체상의 변화는 정체감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Giovannelli, Cash, Henson, & Engel, 2012). 문제는 이 새로운 몸에 근거한 새로운 나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모에 집착하는 성향도 사춘기에 벌어진 신체상 급변에 대한 반응이다.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도 정체감 혼란의 원인이다.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 중인 애매한 시기(Transition Period)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급변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결과,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 혹은 위기에 빠진다.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집단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집단사회화 이론(Harris, 1998)에 따르면 청소년에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나 자신'이 된다. 그런데 집단정체성은 우리(us)와 그들(them)을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할수록 집단정체성은 뚜렷해진다. 대개의 청소년 문화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이자 반문화적 성격 자체가 집단정체성의 기능을 한다. 또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소년들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문화와는 어긋나는 요소들을 지향하게 된다. 기성세대가 싫어하거나, 잘 모르거나, 금지하려 드는 것이 청소년 문화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집단따돌림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집단정체성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태도와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재료인 기억이 결국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계속 재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가 그 세대의 평생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화의 이해가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다. 또래 구성원 중 한명을 외집단구성원으로 정의함으로써 나머지 집단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집단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 물질이 직접 제공하는 쾌감 이전에 그 물질 사용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 즉 집단정체성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의 추구하고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차별은 청소년들이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자각을 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 **청소년기 경험 문화가 그 세대의 평생을 결정**

브론펜브렌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발달모형은 발전하면서 거시체계를 포괄하는 추가적인 환경을 상정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적 배경을 의미하는 '시간체계'(Chrono-System)이다(Paquette & Ryan, 2001). 그리고 이 시간체계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최근 10년간의 생활환경과 그 이전을 가르는 중요한 기술적 경계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공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환경은 급속히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은 최근 5년 사이에 뚜렷해졌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세대의 구분도 이전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나누어진다. 팰프리(Palfrey)와 가서(Gasser)는 현재의 청소년들을 세상에 눈을 뜬 15세 이전부터 이미 인터넷과 무선통신이 주변에 늘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정의한다(2008). 우리 세대가 전기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듯, 이들은 인터넷을 물과 공기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환경요소로 여긴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지배하는 법칙을 다른 곳에서도 기대하며 인터넷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한다.

프랜시스 골턴(Sr. Francis Galton)은 1900년대 초반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회상되는 사건의 밀집도가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후대 학자들이 '회상의 혹'(Reminiscence Bump)이라고 이름붙인 현상이다(Draaisma, 2001, p.259). 회상의 혹은 대개 20세 전후에서 나타난다(Conway & Haque, 199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태도와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재료인 기억이 결국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계속 재사용된다는 것이다. 청년기 혹은 성인초기의 사회상을 기초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가 그 세대의 평생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화의 이해가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⑤

## 창조적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

글 | 박진규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다. 한 시대에 정치적 지배력, 경제적 자산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문화적 창의성, 그리고 문화와 정보공학(IT)의 융합 결과인 문화콘텐츠가 지구촌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말이다.

### 창조적 청소년 문화의 주체가 되도록 환경 조성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가치관, 언어, 몸짓, 여가시간활용, 취향, 인간관계 등에서의 특징적 삶의 유형을 말한다. 이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학습자로서의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거는 기대의 수용, 규범적 학교 환경에 적응하여 만들어 내는 학교문화나 학생문화와는 구별되는 문화이기도 하다. 청소년 문화는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유, 창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는, 기성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전통문화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 세대 나름의 감수성, 순수성, 도전성, 독특성, 그리고 이질성을 가미한 문화이다. 한류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류의 주역이 청소년 세대임을 볼 때에, 이제는 청소년 문화가 우리 사회를 리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학교교육에서도 학교문화, 학생문화를 뛰어 넘어서 학생들이 청소년 세대로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유한계층으로서 창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 청소년 문화의 주체가 되고 창달자(initiator)가 되도록 격려하고, 그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를 살리는 길이자, 우리 사회 미래의 진운을 결정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학생을 소위 베스트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전인적이고도 균형 있게 연마(discipline)하도록 돕는 데 있고, 학생 각자의 직업적, 예술적, 학문적 소양을 계발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진출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융통성이 부족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학교 울타리 속에서 학생 신분과 한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되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활동이 재검토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 현장에 창조적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청소년들의 잠재된 문화감수성을 깨워라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우리 학생(청소년)들의 잠재적 문화감수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화감수성은 역사적 사실이나 산물의 개념, 설명문을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일상에 일어나는 문화현상에 대하여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반응하고, 본인의 느낌과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능력을 말

**청소년 문화는 전체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중핵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하위문화이기에 기성세대 문화의 일면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성 성인의 문화도 똑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다. 즉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표출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개성적 문화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 단위의 문화행사를 학생 주도로 기획하여 개최토록 하게 할 수도 있고, 기존 의례적 행사로 치러지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을 참여케 하여, 그들의 끼와 열정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행사에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 문화 존 축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게 하거나 청소년 상호간 공연을 관람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 학생(청소년)이 자신들의 끼와 멋, 그리고 종합적 문화 창작물을 표현, 개발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과 체험활동을 진정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문화는 문화를 주도하는 집단의 자율성, 활동을 위한 시간, 그리고 공간이 확보될 때 더욱 활성화된다. 그래서 집단 구성의 자율성, 자유로운 활동 시간의 확보, 그리고 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는 창조적 문화 창출을 위한 3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학업 능력에서 모자라고 뒤떨어져서 특정 학생만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전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진출을 위한 소양 배양의 일환으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셋째, 학생(청소년)들에게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현장을 공개하고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의 주역은 문화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청소년들이 차후 주역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 그들이 담당할 문화사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문화사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관련 산업현장을 공개하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이 문화소비의 장에서만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문화의 내용을 제작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문화생산자의 역할을 훈련받을 현장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끝으로 창조적 청소년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타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를 한 집단의 독특한 삶의 양식이라 할 때 청소년 문화는 분명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로의 이행이 그 청소년 문화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는 전체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중핵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하위문화이기에 기성세대 문화의 일면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타의 문화, 특히 기성 성인의 문화도 똑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 청소년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글 |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인터넷과 가상공간,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오늘날 디지털 세대의 판도라상자다. 오늘날의 가상공간은 아직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중적 아누스의 상징공간이란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부여는 바로 사용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이다시피 한데, 현재의 기술적 조건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며, 초를 다뤄 변하는 가상공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펼쳐지기에는 너무도 느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 방안이 주된 흐름이 되고 이에 더해 법령제정과 같은 현실 가능한 타율적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방안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사용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방안을 바르게 주지시킬 수 있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인터넷과 가상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사용동기와 이용시간에 대한 계획적 활용습관을 가정을 중심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가정체계가 빈번하고, 설사 정상적인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 해도 가족기능이 취약해지면서,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대체할 사회 대체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학교 교사의 아동 및 청소년세대에 대한 따뜻한 개입(warm intervention)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활지도 역시 단순히 학습관련 생활지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그 진단결과에 더해 때때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최근 중시되는 청소년 생활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아동·청소년세대에 따뜻한 개입 필요

첫째, 아이에 대한 기초진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의 생활전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진단은 때때로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시·군·구마다 설치되어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이곳은 성장세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각종 진단도구와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어 평소에 학교와 기관 간 연계협력을 맺고 있으면 예상외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보호아동 및 문제청소년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전략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까지 가능하여 실제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등 청소년 문화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기관으로 아이윌센터(I will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청소년 사용자 중심의 자율적 이용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용자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라 한다면 단연 청소년 문화가 갖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둘째, 기초진단에 처한 후 특정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와 협력 가능한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자. 정신보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해밀센터, 아하센터 등의 기관은 특별한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갖고 있다. 최근 청소년이 고통받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거나 부모와의 대화가 막힌 아이에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성교육관련 프로그램에는 해밀센터와 아하센터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점점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바, 평소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관련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기 중 혹은 방학 중 개설되는 각종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눈여겨본 후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사 전문역량개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고려해볼만한 것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센터들에서 여는 다양한 역량개발 연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 센터들은 최근 청소년세대의 다양한 변화들, 가상공간의 움직임과 관련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여 연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 의외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잘 정련시킨 자신의 전문역량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방안의 확대와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규제방안은 학교에서 정보문화교육과 정보윤리교육 등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하여 인터넷과 가상공간이 갖는 부정적 영향을 청소년사용자들 스스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학교부터 경주해야 한다.

### 청소년 사용자의 자율적 규제 강화

가상공간에서 청소년 사용자 중심의 자율적 이용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용자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라 한다면 단연 청소년 문화가 갖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창조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되 지나친 몰입과 중독을 경계하며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협력과 참여를 경험하도록 집단이기주의와 획일성을 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상공간이 갖는 기능적 장점과 단점을 분별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에 중첩될 미래의 '이중적 삶의 균형과 조화능력'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점에 있어 분명한 것은 이중적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주체는 결국 사용자 자신이며 사회는 인터넷과 사이버음란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 책임을 이제 학교부터 발휘할 때다. ⑤

# 누가 수업 전문가인가

김차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부장

정돈되지 않은 채 무성하게 돌아난 잎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흐드러지게 핀 녹음방초가 야산(野山)에 우거져있는 6월은 얼굴에 덕지덕지 돌아난 여드름투성이마냥 자라나는 청소년과 닮아 있다.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 때, 필자는 교과서 진도폐기에 함몰된 수업보다는 교사가 교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인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제재(製材)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수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경쟁'을 통해 성적 올리기에 함몰되는 교육 풍토는 양적 팽창이 매우 중요한 중진국에서는 필요한 요소이지만,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해야 하는 선진국 모형으로는 2% 부족한 철 지난 패러다임이다.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가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교육과정 문해력(Literacy)을 길러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이미 교사들에게 주어졌지만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르치는 데만 익숙하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권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순서로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거나, 학생들과 같이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순서지우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먼저 배우고 어떤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거나,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는지 상의하면 된다.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과서 내

용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교사가 수업의 전문가인 까닭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줄 알고 학생 입맛에 맞춰 요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학생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보자.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인 성취기준을 잘 분석해보면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도 있고, 학습자 참여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더 나은 성취기준도 있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논리 전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더 좋겠다고 판단이 서면 교사가 일방적 강의 대신에 과감하게 학생들을 수업의 주체로 내세우자는 의미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학습자 참여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학습자 참여를 통해 해결하면 더 좋을 성취기준조차도 교사의 일방적 강의, 지필고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각 있는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전체 열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학습 요지를 잡아내는 방법만 안내해주고 나머지 과정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 방식, 의지 등을 종합하여 교사가 설계해놓은 트랙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법이다. 교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



**교사가 즐거운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즐거운 수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학생의 구미에 맞게 요리를 할 줄 안다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느끼는 행복감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교환하는 가운데 마음껏 지적 희열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그럼 혹자는 시험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 자체가 평가가 될 수 있다. 교사가 평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교사를 믿지 못하고, 수업 과정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교사가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게 한다면 수업의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교수법 이론을 제시했지만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당사자는 교사 본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교사 본인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교재 재구성-학습자 참여형 수업 설계-과정 평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에게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고 수업을 설계하여 몇 차례 학습자 참여 방식으로 수업을 실행하다보면 어느새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 법이다.

교사가 수업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기 때문이다. 수업이 재미없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다. 이제는 교사가 즐거운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즐거운 수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학생의 구미에 맞게 요리를 할 줄 안다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느끼는 행복감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길만이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만족감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대안이기 때문이다. ②



**김차진 교육연구관**은 용궁상업고, 청주중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 등을 거쳐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성서고와 경북고에서 교감을 지내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으로 일하다가 올 3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사시절엔 학생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교사로, 전문직 시절엔 질 높은 교육과정 정책 입안 및 실천을 다짐하는 전문가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Q**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 게임이나 쇼핑을 할 때 또는 학교숙제를 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회원가입을 하라며 이것저것 입력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키거나 몰래 쇼핑몰에 결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보안에 허점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해커들은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평소

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PC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사고들을 보면 이미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보안수칙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면 해커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쉽게 탈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본보안 수칙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사이트(<http://privacy.go.kr>) 또는 보호나라 사이트(<http://www.boho.or.kr>)에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청, 대학, 학교 등 각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각종

### ★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수칙 ★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4.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8.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성적, 건강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행정)기관과 다방면으로 협조하여, 이들 정보시스템이 여러 보안단계를 통과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안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 밖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패치와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를 두어 개인정보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업무사례집, 매뉴얼 등을 제정하거나 개발·보급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지침, 매뉴얼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보안관련 H/W 및 S/W 도입·설치를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 구성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일상생활과 각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및 컨설팅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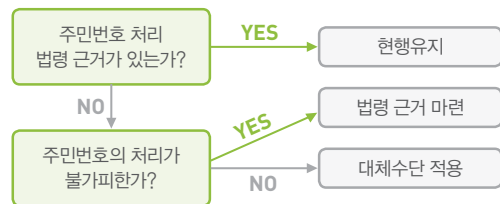
보안에는 100%, 완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보안 위협은 발생하고 있고 또 방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노력한다 해서 보안 위협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은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기관은 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철차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4.8.7.)**

최근 각종 해킹사고,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피해 급증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수집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http://www.privacy.go.kr>)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 다섯 가지 체육활동 강화해 학부모 신뢰까지 돈독



“선생님 저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외발자전거 조금만 타고 오면 안 돼요?”

예전에는 컴퓨터실에 10분만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던 아이들이 두 손을 꼭 모은 채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내 손목을 잡아끈다. 이렇게 운동만 하자고 졸라대는 모습이 올해로 3년, 성장기에 들어서 키도 부쩍 크고 외모도 건강하게 변한 아이들을 위해 피곤하지만 목에 호루라기를 매고 운동장으로 나선다.

## 기초체력을 향한 새로운 시작

교직경력 6년차의 아직은 배울 것이 더 많은 나는, 3년 전 고흥군 내나로도에 위치한 학생 수 28명의 아담한 소규모 벽지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학교의 지역·지리적 특성상 학부모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며, 조손, 편부모,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면내에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전혀 없어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있어 유일한 교육시설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학교교육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기대하는 바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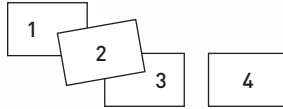
이런 아이들을 위해 부족하나마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다.

‘무슨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하면 바쁜 생업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해 학교만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2012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 놀라 할 말을 잃어 한참을 그 문제에 대해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골아이들이라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 중 4, 5등급의 비율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것이다. 의외의 결과에 대해 놀랐지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시골 벽지학교이다 보니, 근처에 체력을 단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고, 마을 간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만나 같이 뛰어놀 수조차 없었다. 학교에서는 늦게까지 방과 후와 돌봄 교실에서 앉아 공부하느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체육 교과시간뿐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덩치만 크고 체력은 한없이 약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일상이었다.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

1. 등산하기
2. 외밭자전거 타기
3. 풋살 경기
4.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그래 이거야! 아이들을 위해 기초체력을 길러주어야겠다!’

나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세웠다. 고흥군에서는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각 지역 학교들에게도 생소한 외밭자전거, 우리학교처럼 농·어촌 벽지학생들은 꿈도 못 꿀 인라인스케이트, 학생들에게 친숙하지만 체계적인 지도가 부족한 줄넘기, 전년도에 학생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던 만능체력 기르기 풋살, 자연을 벗 삼아 심폐 지구력을 길러 줄 등산 이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켜 또 다른 행복과 만족을 찾아 주겠다. 더불어 비만 학생들의 개선을 위해 이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행복을 향한 새로운 시작! 이 첫 발걸음의 이름을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이라 하자!

### 5가지 체육활동,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하나의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처럼 ‘체력UP! 건강자람이 활동’의 1년간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중간놀이 시간과 매주 토요일 1교시부터 4교시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연간지도계획을 꼼꼼히 세웠다. 학교행사에 따라 빠지는 날을 미리 치밀하게 계산하여 지도 내용, 장소, 시간을 정해 틀림없이 시행했다. 아이들도 그 시간은 당연히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 시간이라 여기며 즐겁게 잘 따라왔다. 미리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 학습효과와 의욕도 높이고, 교사인 나도 단계적,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5가지 체육활동의 연간지도 내용에 맞게 총 108가지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전에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밤낮 없는 노력은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학부모님들의 반가운 인사로 나에게 돌아왔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 하기 싫다고 떼를 쓰면 어쩌나 하던 걱정은 어디 갔는지,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의 5가지

체육 활동은 각각의 고운 빛깔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만 물들여 가고 있었다.

‘모듬활동을 토대로 한 모두 같은 수준에서의 단계적인 시작’ 이것이야말로 ‘체력UP! 건강자람이 활동’의 성공 요인이다,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꿈꾸는 교육의 이상향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풋살의 피ୟ자도 몰랐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구사해 가며 박지성 선수 같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다. 벽지학교에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인라인스케이트는 그야말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는 날이면 친척들까지 데려와 출석률 120%로 운영할 수 있었다. 외발자전거는 서커스에서만 보던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최고의 운동이었다. 수백 번을 넘어지면서도 다시 올라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 또한 깜짝 놀랐다. 이제는 공연을 기획해도 될 만큼 실력이 일취월장 하여 체육관 20바퀴는 모기를 부리며 거뜬히 타내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 줄넘기는 학교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아 급수제를 도입하여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산은 학생들이 산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자연을 벗 삼아 넓은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만능형 운동으로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에 간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5가지 각기 다른 빛깔을 가진 체육활동이 작은 시골마을 벽지학교에서 저마다의 고운 색깔을 뽐내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그려주고 있다.

### 전교생이 친형제 · 친자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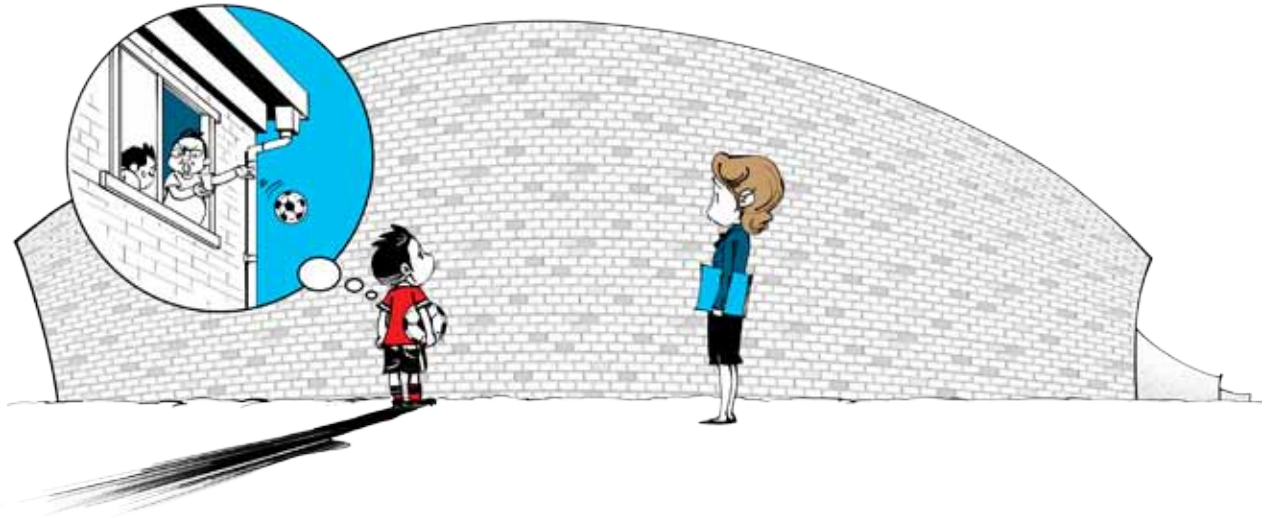
아이들과 내가 함께 만드는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다. 키만 크고 덩치만 커서 비리비리 했던 아이들이 5가지 체육 활동으로 인해 단단하고, 빠르고, 건강해졌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이들도 나도 더욱 신이 나서 급물살을 타듯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이들의 외모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원래 성장기이긴 했지만, 키도 부쩍 자라고, 통통했던 살들이 점점 단단한 근육으로 변해가는 것이 내 눈에도 그 변화가 보일 정도였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땠겠는가?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 덕분에 학부모님들이 나를 보는 눈빛은 그야말로 신뢰, 믿음과 기대로 가득하게 되었다. 예전에 마을 길에서 만나면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내 손을 꼭 잡으시는 것이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다.

또한 항상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학년별로 생기는 학교폭력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전교생이 친형제 · 친자매처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이 학교 체육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단순하게 학생들의 기초체력만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 문제인 공교육의 추락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 및 인성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황금열쇠가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 진로장벽,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선생님, 저는 정말 피아노가 좋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레슨비를 내기 어려워요. 너무 속상해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축구시합을 할 때가 참 행복해요.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축구선수로 성공하기 어렵고 훈련과정도 너무 힘들다고 제 꿈을 반대하세요. 제가 공부도 제법 하니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하세요.”

위 사연은 청소년들이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진로장벽들이다. 진로장벽이란 학문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부정적 요인 또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하면 진로장벽이란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걸림돌을 의미한다.

진로장벽 문제는 진로지도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도와주기 힘든 주제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심리검사를 권유하고,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 인터

넷 정보 수집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또한 의사결정 문제는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안내하면 되지만 진로장벽 문제는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도 다른 문제에 비해 훨씬 크고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진로장벽 유형과 지도 방법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진로장벽 유형과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3,000여 건의 사이버진로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한 청소년들이 겪는 진로장벽 유형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어려운 가정 형편, △부모님과 갈등과 함께 △잘하는 것(적성)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경우, △꿈은 있지만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고민하는 성적 문제, △외모나 체격 등의 약점 때문에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신체적인 문제 등이 있다.

진로장벽 지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사나 상담자가 청소년들이 겪는 물리적인 진로장벽을 사라지게 또는 낮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진로장벽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는 진로장벽에 대한 생각 또는 인식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극복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자신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과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인지를 여러 도구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처리, 인지 왜곡, 역기능적인 비합리적 신념 등으로 인한 지각된 진로장벽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인지 재구조화를 통하여 장벽요인들에 대한 시각을 수정함으로써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을 도울 수 있다(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는 것이다.

#### 누구에게나 진로방벽은 있다

위 주장을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누구에게나 진로장벽은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마음은 '왜 나만 이런 상황을 겪을까'라는 점에서 오는 억울함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장벽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장벽을 겪고 있으며, 성공한 사람조차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작고 큰 진로장벽을 겪었음을 사례로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가급적 청소년이 호소하는 유사한 진로장벽을 극복한 유명인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수 박정현이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한 사연을 알아보자. 박정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예술인의 꿈을 꾸며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목사인 아버지는 박정현이 목회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신학과에 가길 바랐고 어

머니는 성적이 우수한 딸이 변호사가 되길 기대했다. 박정현은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부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대본을 외워서 조목조목 이유를 나열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는 많지만 예술인은 적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1시간 반 동안 설득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갈등할 때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인 부모님과 언쟁하기, 급기야 가출하기 등과는 전혀 다른 식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박정현은 교회에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길 듣고 교회에서 매주 피아노를 쳐주기로 아버지와 타협했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유명인의 다양한 진로장벽 극복 사례 수집을 위한 참고 문헌으로 『크리티컬 매스』(백지연, 알마 출판사, 2011)가 있다. 여기서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는 임계질량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물리학 개념으로서 어떤 핵분열성 물질이 일정한 조건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을 말한다. 물을 끓이는 것을 예로 든다면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가 결국 100도가 되어야만 끓기 시작하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로장벽 극복과 관련지어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진로장벽을 만나면 조금은 노력하지만 얼마 못 가 포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를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자 장혁은 오디션에 무려 119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120번째 당당히 합격했다고 한다.

#### 진로장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라

둘째,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태보다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태도 중요하지만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심각성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

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진로장벽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 과정에 활용한다면 진로장벽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신지에는 2009년 만 19살이라는 나이에 세계 1위에까지 오른 세계적인 골프선수이다. 이 선수는 원래 어려운 형편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큰 사고를 겪는다. 아버지와 자신이 골프장에 있는 사이 어머니와 두 동생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사고 나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두 동생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많이 다쳤다. 이 상황에서 신 선수는 동생 병간호를 위해 골프를 잠시 쉬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망 보상금으로 다시 골프를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은 더욱 단단해졌던 것이다. 전에 같으면 실수했을 때 '다음에 잘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 이 선수는 특히 실력보다는 정신력이 더 중요한 연장전에서 절대 지지 않는 선수로 유명한데, 혹자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 선수를 세계 1위로 만든 원동력이라 말한다. 결국 신 선수에게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동생이 크게 다쳤던 그 사고는 겉으로 보면 엄청난 걸림돌이었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발달

마지막으로 진로장벽 극복을 지도할 때 방향 설정에 있어 진로장벽 지각 축진설과 방해설에 따른 평가가 중요하다.

진로장벽 지각은 진로성숙도에 있어 방해 또는 축진 두 가지 설이 공존하고 있다. 스완손(Swanson)과 토키아(Tokar)(1991)는 "어떤 사람에게는 장벽의 지각이 진로 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축진제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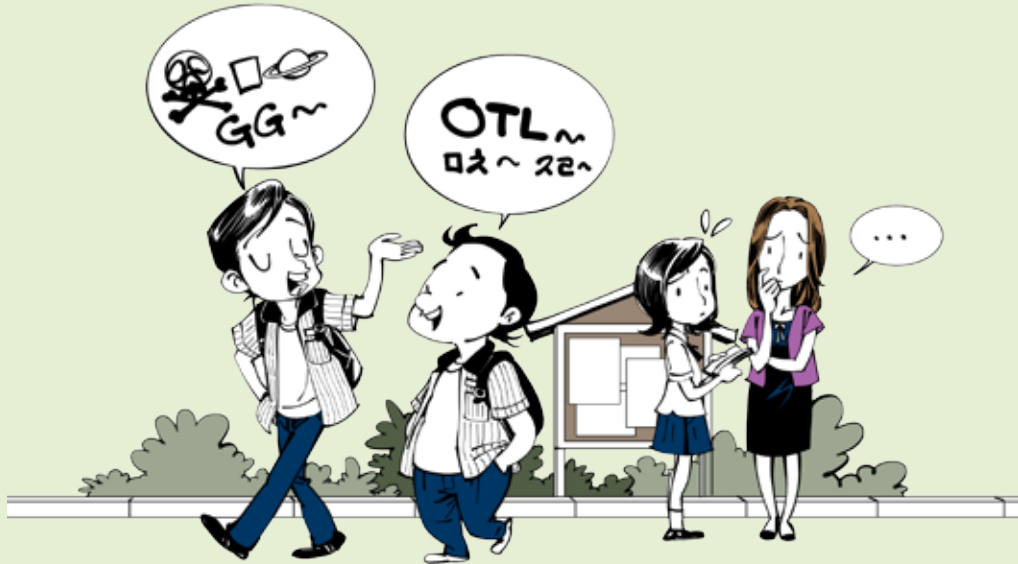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심각성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심하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진로장벽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 과정에 활용한다면 진로장벽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단선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그 사이를 매개하는 여러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손은령(2001). 진로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이 학생에게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장벽 지각을 낮춰주는 지도방향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도 있다. 학업성적도 저조하고 생활태도도 불성실한 한 학생에게 교사가 "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려고 이러니?"라고 염려를 하니 이 학생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저 나중에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재벌이 돼서 멍멍거리고 살 거예요." 학교 현장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 학생은 요즘 말로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장벽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학생에게는 "아, 그렇구나. 일단 너에게도 진로 목표가 있다니 정말 반갑네. 그럼 우리 네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까?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청소년 워크넷에서 네 꿈과 가장 가까운 CEO 즉, '기업고위임원'의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라고 접근하여 기업고위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학력, 역량, 자격 등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줄 수 있다. 진로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학생에게는 오히려 진로장벽 지각을 높여줌으로써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⑤

##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신조어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들도 자신의 십대를 돌아보면 ‘땡땡이친다(수업을 무단으로 빼먹다)’, ‘따봉!(최고야! 좋구나!)’, ‘골빈당원(소견머리가 부족한 사람)같은 은어를 사용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삼십대 교사들은 짱(최고다), 생까다(모른 체하다), 꼽사리(억지로 끼어들기)를 쓰던 시절이 생각날 것이다. 이십대 교사들은 여병추(여기 병신 하나 추가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방송에 젊은 연예인이 나와서 ‘얼척없다(어이없다)’ 하거나, ‘꺾 장미단추(멀리서 보면 미인, 가까이서 보면 추녀)에게 금사빠했어(금세 사랑에 빠졌어).’나 ‘어제 엄마크리(엄마 화내시고)하고 파덜어택(아빠 꾸지람하셔서) 존나(매우) 빛의 속도로 GG했어(게임 끊고 나갔어).’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젊은데 벌써 십대와 세대차이가 생겼나?’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 십대들의 생활상 가치관을 반영하는 은어

십대들끼리 쓰는 말은 몇 갈래다. 속어는 사적인 자리에서 ‘구라(뺨, 거짓말)친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조어는 레알(real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것이며 ‘진짜로’의 뜻)같은 외국어에서 오는 말이며 가끔 표준어가 되기도 한다. 통신체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서 핸드폰의 요금(알)을 아끼려고 ‘스ㄱ(수고해라)’, ‘ㅇㅇ(응, 그래)’, ‘스스(죄송)’, ‘스르(지랄)’, ‘절친(절친한 친구, 혹은 베스트(Best friend))’, ‘즐~(KIN, 께저의 뜻)’, ‘cu(see you)’, ‘oic(oh, I see)’, ‘11(컴퓨터를 잠시 떠난다)’, ‘22(컴퓨터 앞에 다시 돌아왔다)’처럼 줄임말을 쓰는 것이다. 인터넷 유행어는 검열삭제(19금 내용을 봄), 쉴드(shield)친다(공격당하는 친구를 편들)처럼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만들어낸 말이며, 어휘수가 가장 많다. 십대들의 은어는 그들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못 흥미롭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게임** 제곧내(자그나, 냉무): 제목이 곧 내용(별 내용이 없다는 뜻), 짤방(움짤): 게시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업기사진을 추가해서 잘림을 방지(움직이는 짤방), 상메: 카톡상 메시지, 개드립: 말도 안 되는 말, 맞사: 서로 관계 삭제, 자삭: 자진삭제, 퇴깬(입깬): 갤러리 퇴장(입장), 트인냥: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 지지(GG): 'Give up Game' 혹은 'Good Game', 만렙: 滿Level 즉 게임의 최대 레벨, 본캐(부캐): 본래 캐릭터(제 2캐릭터), 찔: 고렙이 저렙을 위해 경험치를 상승시킴, 팀킬: 같은 팀을 공격, 현질: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입, 종특: 종족특성, 크립: 중립 몹(몬스터), 엑박: 엑스자 모양으로 표시된 그림파일

**학교** 문식답: 수학의 문제-식-답, 기포: 기말고사 포기, 제물포: 재(물리교사)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선생님 탓할 때 사용),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아이, 슈퍼썸데이: 고3이 한 달에 1번 노는 일요일, 디비: 담배, 꼬댕이: 공부도 놀이도 못하는 아이, 쯤댕이: 조그만 게 땡땡거리는(입담이 센) 아이, 십장생: 십대부터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강전: 강제전학, 불금: 불타는 금요일

**사람 · 용모** 관중: 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 흰빨금: 얼굴은 희게, 입술은 빨갈게, 눈에 검은 써클렌즈를 낀 여학생을 비하함, 까탈레나: 까칠하지만 친하고 싶은 아이, 여미(남미): 여자(남자)에 미친 아이,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하는 아이, 갈비: 갈수록 비하감, 초글링: 초딩+저글링으로 유치한 아이, 사개: 사진보다 실물이 뛰어난 아이, 안여멸(안여돼): 안경 쓰고 여드름 나고 멀치(돼지같은)같은 아이, 들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생활 · 감정** 메롱스럽다: 난감하고 뽀뽀하다, 관광(역관광)당하다: 강제로 창피당하다(타인을 창피주려다 되레 창피당하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안습(안쓰): 눈물남(눈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사치원의 벽같이 수준 높은 대상, 대륙·천조국·열도·반도: 중국·미국·일본·한국, 병맛: 병신같은 맛, 무지개매너(비매): 무지하게 예의없는 개매너, 부금: BGM(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을 소리나는 대로 읽음, 열폭: 열등감 폭발, 오유: 오늘의 유머, 아오안: 아웃 오브 안중, 즉 관심 밖 이라는 의미

**사고 · 개념구성의 깊이가 얕아지고, 세대 간의 단절 일컫**

왜 이런 십대들만의 언어가 생겼을까?  
 자기계층에만 소통되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은어를 만드는 것은 심마니든 경매꾼이든 예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상황이 무수히 생기고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성 때문에 신조어와 약어가 더욱 늘어난 것 같다. 그러므로 이상하고 불순하게만 여길 일이 아니고 십대들에게 다가온 21세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은어와 축약어가 전달속도는 빠르지만 전달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에 십대들의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고나 개념구성의 깊이가 얕아지고, 세대 간 단절이 쉽게 오고, 비속어 쪽으로 기울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요즘 가뜰이나 전국적으로 십대들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교사들도 손을 마냥 놓고 있을 수 없다. 건전한 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비속어 금지를 적극 지도하고, 좋은 언어를 숭상해서 사용하고, 멋진 표현을 익히게 하면, 십대에 신조어를 사용하던 시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품위 있고 정확한 언어를 멋지게 사용하는 성인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다. ㉠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각 학교에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지도, 교육자료 대여, 금연강사 지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 캠페인 행사를 주도하는 등 인천교육청만의 학교흡연예방교육 특색사업으로 금연교육정보센터 운



인천 산곡남중학교에서 펼쳐진 흡연예방 캠페인

영학교(중 5교, 고 5교, 각종 1교, 총 11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교육정보센터 운영학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연도별로 1교당 660만 원의 예산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청소년 흡연을 저하와 흡연 경험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제9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조사 / 시도 중·고등학교 800개교 8만 명 대상)결과를 보면 인천지역의 학생 흡연율이 △ 2011년(11.6%) △ 2012년(10.2%) △ 2013년(9.5%)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금연교육정보센터 운영학교 확대와 함께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금연교육정보센터 운영학교(11교) 이외에도 단위학교 중심의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선도학교 56교(초 11교, 중 17교, 고 28교)를 지정, 1교당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교문에 선도학교 현판 부착 △ 학부모, 교직원 연수 실시 △흡연 실태조사와 금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 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일반학교에 전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내실 있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이나 흡연을 감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학교와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금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 수요자 중심의 대입 상담 대폭 강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4월 울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진학상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4월까지 울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jinhak.use.go.kr>)를 개편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일시에 센터에서 대면상담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예약시스템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전화 예약 시스템을 변경하여 누구나 원하는 일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수시모집 대비 대입 상담의 날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요일별 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수험생이 원하는 일시(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시에는 학반과 성명, 그리고 학부모 휴대폰번호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루 최대 9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에는 입력한 휴대폰으로 문자로 예약 여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회 순차적으로 예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예약이 이루어지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의 대입상담 전문교사 13명과 진학상담이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전화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진학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상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입상담교사단 230여 명의 전문가와 전화로 진학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 등 진학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 전화(1500-1615)로 연락하면 전국 230명의 대입상담교사단 중 1명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진학상담을 강화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온라인 상담을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험생 및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진학상담을 원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 접속한 후 오른쪽 메뉴 '온라인 상담'을 클릭한 후 상담요청을 하면 대입 상담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상담해주는 시스템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대입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진학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진학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오는 7월에는 2015학년도 대입 수시지원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학상담 심화과정 연수를 개설하여 현장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 장독대가 있는 학교

최근 친환경 생태학습으로 '장 담그기'를 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금줄을 두른 채 학교 뒤편에 놓인 장독대는 학교의 색다른 모습 중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잊혀져가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독대가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도내 작은 학교 10개교를 선정, 각 1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했다.



평창 대화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메주로 장을 담그고 있다.

올해 '장독대가 있는 학교'로 선정된 평창 대화중은 지난달 초 마을 주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장 담그기 행사에 쓰인 메주는 지난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여기에 고춧가루, 찐 보리밥, 양념, 고로쇠, 소금 등을 섞어 고추장, 막장, 간장을 각 3말씩 만들었다.

대화중 함춘홍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담근 장은 급식 식재료에 쓰인다."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장이 급식에 나오는 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인제 부평초와 강릉 송양초도 '손 없는 날'을 골라 아이들과 함께 장을 담갔다. 2년 뒤 후배들이 먹을 장을 담그는 아이들의 진지함은 어느 장인 못지않다.

강원도교육청은 '장독대가 있는 학교' 외에도 '나트륨 줄이기'와 '채식의 날'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임성엄 체육건강과장은 " '장독대가 있는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모여 신뢰와 협동을 구축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건강한 작물 재배와 전통음식 만들기로 생태적 감수성을 쌓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 함께 높아져 작은 학교의 희망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⑤





## 경남도 내 86개교 기숙사에 CCTV 516대 설치

경남교육청은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86개 학교에 고화질 CCTV 516대를 설치, 기숙사 폭력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기숙사 특성상 학교폭력에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경찰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윈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숙사 사감과 부사감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365 안전한 학교 만들기 5안 프로젝트’는 안전한 학교환경 기반 구축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를 밀착시키는 안전한 교실 조성 △안전교육 윈스톱 시스템 구축 운영 △우리 집보다 안전한 기숙사 책임 운영 △안전한 학교 만들기 범도민 운동 전개 등 5개 프로젝트다.

안전한 학교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만 5,000여 명의 꿈나르미 보안관을 적극 활용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급별 ‘195감성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빈도가 높은 학교에 전담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는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위학교별 꿈키움교실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사를 밀착시키는 안전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업무를 20% 축소시키고 교사-학생 간 소통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급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담임-학생 SNS 상담 활성화, 사제동행 ‘행복산책길’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안전교육 윈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전문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활용한 안전교육 연 10시간 의무화 △SOS 벨, 아우성 우체통 설치 운영 △학교급, 학교실정, 상황에 맞는 행동 중심의 매뉴얼을 보급한다.

‘우리 집보다 안전한 기숙사’ 책임 운영을 위해 도내 86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화질 CCTV를 학교당 평균 6대씩 모두 51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화질 CCTV 확보에 총 6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확보해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기숙사 운영상 취약 시간대인 오후 10~12시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지역사회 공동으로 야간순찰조를 편성,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숙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감의 경우 별도교사를 충원하고 전보가산점 부여, 숙직 후 오전 근무 면제, 특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많고 있는 부사감에게도 특정수당 등 파격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숙사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치위원회제를 폐지하고 교사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며 학부모와 경찰·교사·유관기관과의 협조로 24시간 안전한 기숙사 문화 조성에 전 행정력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숙사 전문컨설팅단을 상시 운영하고 기숙사 안전매뉴얼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성기홍 교육국장은 “학교는 물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 설치된 CCTV

# NEWS BRIEFING

##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속 해결

교육부는 학생안전에 대비해 특별교부금을 마련,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조보강 및 철거대상 시설 47동에 대해서는 오는 여름방학까지 보완 조치하고, 개축대상인 57개동에 대해서는 '16년까지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사업비를 50%씩 부담함으로써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개선비를 지원하여 여름철 자연재해사고를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초·중·고교 짬통교실 사라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따라 올 여름 초·중·고교에 냉·난방비용이 보조된다.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 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에 이어, 한국전력은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4% 할인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 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EBS 교재,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신속 배포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저소득층 자녀의 EBS 교재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초·중·고 학생 23만 여명에게 EBS 교재 92만부(정가기준 69억 원 상당)를 지원한다. 또 교육부와 EBS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EBS 교재가 발간됨과 동시에 교재를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무상 배포를 시작한다.



## 나도 미래의 CEO, 창업 꿈나무들의 경연



청소년들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제2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픽'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기후변화, 에너지부족 등 전 지구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공간소음, 밤길안전장치 등 생활 및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 아이디어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접수처(<http://www.creative-korea.or.kr/contest/150>)로 7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6월은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 한국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국가보훈처



## 송고한 희생, 그 가치를 만나다 홍천 강재구소령기념관

미안하다, 사랑한다  
수없이 건넌 고백들이  
그대 곁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진다.  
후회가 머문 자리마다 텅 빈 가슴뿐이다.

꽃 먼저 보내고 봄이 가려는지  
꽃 같은 그대 먼저 보내고 봄이 가려는지  
꽃이 진다.  
그대가 없다.





파편이 뚫고 간 자리에 성글게 돋은 공허(空虛). 수류탄 조각들은 견고하게 직조된 전투복에 참담한 문양을 남겨놓았다. 스물여덟, 젊은 장교의 마지막 생이 그곳에 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도로 275번지는 강재구 소령의 추모비와 기념관이 자리한 곳이다. 강재구 소령은 1965년 10월 4일 맹호 제1연대 제3대대 제10중대장으로 월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하던 중 한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이 떨어지자, 많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치고 장렬히 순직한 인물이다.

수류탄이 떨어지는 찰나 수십 명의 부하들을 먼저 살리고자 한 그의 용기와 희생은 2014년 '진인한 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보여준 그의 망설임 없는 결단은 개인적 차원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꿈꾸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반세기 전의 주검에서 오늘의 삶이 위로를 받는다.

### 반세기 전의 주검이 나를 위로한다

강재구 소령이 산화한 지점을 나타낸 표지판 앞에 발길을 세운다. 치열했던 그날의 아우성은 간데없고 수풀사이 풀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려온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당시 사용했던 훈련용 수류탄과 철모, 전투화 등이 전시돼 있다. 강재구 소령이 산화하던 당시 수습된 수류탄 파편들과 터지고 부서진 전투복이 그날의 처절함을 증거하고 있다.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뼈곡하게 채워진 그의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일지에 눈길이 머문다. 한 글자 한 글자 반듯하게 내려쓴 글씨에서 그의 푸른 꿈을 본다.

군번줄, 명찰, 계급장, 신분증, 수도사단 소대장시절 일기...

그의 삶이 남긴 흔적들을 천천히 따라가다 울컥 목울대가 빠근해진다. 젊은 아내와 이제 막 첫걸음을 댄 동생이 아들.

당시 신문기사들은 강재구 소령이 남기고 간 젊은 아내와 외아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결혼한 지 2년째 접어든 그의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그녀 옆에 무구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기가 있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영웅을 얻었으나 이들은 가족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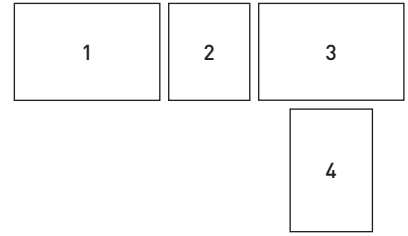
두 모자가 온몸으로 뚫고 나아갈 삶을 기뻐할 수 없다. 다만, 기억할 뿐이다.

육군에서는 강재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맹호 제1연대 제3대대를 '재구대대'라 명명했다. 파월 당시 재구대대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1966년 2월 18일 월남의 자유수복지역인 빈딩성 푸캣군에 '재구촌'이 설립되었다. 또한 매년 희생정신의 본보기가 되는 모범 중대장을 선발하여 '재구상'을 수여함으로써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영원히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산 자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것이다. 문의:(033)430-4591

### 영혼을 치유하는 샘, 자연환경연구공원

강재구 기념관에서 차로 5분 남짓 달리면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다. 이곳은 '공원'이라는 이름보다 그저 '자연'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곳이다. 19.27km<sup>2</sup>나 되는 넓은 부지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길을 따라 토양, 습지, 식물, 곤충, 조류와 관련된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견학, 관찰, 참여 등 현장 중심의 생태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았다.





1.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을 살리고 순직한 강재구 소령 추모탑
2. 수류탄 파편으로 터지고 헤진 강재구 소령의 전투복
3. 자연의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4. 공작산 수타사는 그 비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곳에선 희귀·멸종·야생 동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증식 및 복원 연구가 한창이다.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복원, 생태하천 및 수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숨 쉴 수 있는 생태탐방로 등도 갖추어놓아 전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자연환경 연구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나비관찰원이다. 망사로 이루어진 돛시설물 안에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 등이 날아다니는 장관

을 볼 수 있다. 멸종위기식물원에는 40여 종의 멸종위기식물들이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반딧불이 생태관찰지는 반딧불이가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곳으로 저녁 해가 지면 반딧불이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 별들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한다. 문의:(033)248-6570

### 비경에 폭 빠지는 공작산과 수타사

홍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공작산 수타사이다. 공작산은 해발 887m로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세가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홍천읍에서 바라보면 거인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암절벽과 분재모양의 노송군락, 눈 덮인 겨울산도 일품이다. 수타사에서 동면 노천리까지 약 12km에 이르는 계곡에는 넓은 임반과 큼직큼직한 소(沼)들이 비경을 이룬다. 계곡 양쪽으로는 기암절벽과 뽕뽕이 우거진 숲이 호위하고 있어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문의:(033)430-2790

공작산 끝자락에 안겨있는 천년고찰 수타사는 신라33년 성덕왕 7년(서기 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대적광전 팔작지붕과 1364년 만든 동종, 3층 석탑이 보존되어 있고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를 비롯한 범종, 후불탱화, 홍우당부도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2014년 봄이 가고 있다. 꽃이 지고 푸르름이 짙어진다. 때로 자연은 거친 영혼을 담그는 치유의 샘이 되기도 한다. 새록새록 새살로 채워질 그 날을 기다린다. ㉠

# 행복한 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교육부가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을 비롯해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농협, 개인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복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 둘째, 대학, 지역도서관, 교육모임에 보내주세요

대학, 지역도서관, 5인 이상의 교육모임(동아리, 교육단체, NGO)이라면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happyedu.moe.go.kr)에 들어오셔서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02] 2271-0992

## 첫째,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유치원, 초·중·고교에 『행복한 교육』이 도착하고 있지 않다면 관내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신청해 주세요.

### [시·도교육청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김미란 02-3999-120 부산시교육청 황지원 051-8600-224  
대구시교육청 류은희 053-231-0052 인천시교육청 김동현 032-4208-226  
광주시교육청 박재형 062-380-4250 대전시교육청 김연희 042-480-7584  
울산시교육청 신진욱 052-210-5694 세종시교육청 김부환 044-320-1135  
경기도교육청 이상원 031-249-0941 강원도교육청 전홍 033-258-5386  
충청북도교육청 이정훈 043-290-2055 충청남도교육청 이장원 041-640-6514  
전라북도교육청 김정훈 063-2393-160 전라남도교육청 김명자 061-260-0056  
경상북도교육청 이선중 053-603-3283 경상남도교육청 박병규 055-278-1784  
제주도교육청 강행필 064-710-0122

## 셋째, 개인에게도 보내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은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면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모니터단은 매달 한 번씩 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피드백해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happyedu.moe.go.kr)에 들어오셔서 모니터단으로 신청하세요.

[02] 2271-0992

## 오자만담

### 밥상머리교육 ○○○○○로 시작하자.

가정교육의 출발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죠. 재치를 담아 다섯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우편번호)를 꼭 기입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21@gmail.com (gmail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오자만담 당첨자 4월호 주제 : 청소년 진로탐색 노하우는 ○○○○○이다

룰모델찾기(김민정) / 내마음탐색(김영자) / 발품과경험(김설한) / 목표정하기(이진영) / 동아리활동(조한석)



# 즐거운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나들이철에는  
김밥, 도시락 등 보관·섭취에 신경써야합니다

##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방법

### 도시락 준비부터 보관·운반 및 섭취

#### 도시락 만들기



조리 전·후  
올바른 손 씻기



조리음식 중심부까지 75℃  
1분이상 완전히 익히기



밥과 반찬은 식혀서  
다른 용기에 담기

### 산나물 섭취 바로알기

#### 야생 식물류 힘부로 채취하지 않기



### 안전한 보관·운반 방법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 등은  
온도가 높으므로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

### 적대로 된 조리방법으로 산나물 섭취하기



생채로 먹는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 조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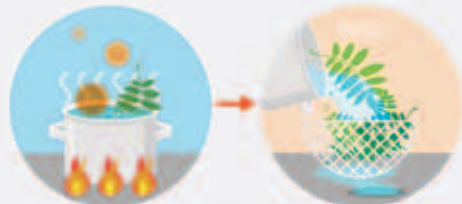
### 안전한 섭취 요령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 티슈로 닦기



마실 물은  
집에서 미리 준비



두릅, 다래순, 원추리순, 고사리 등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 후 섭취  
\* 원추리는 지혈수축 특성이 강해지므로 어린순만 섭취 가능



교육정책·정보의 허브


# 행복한교육 웹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하고 깊이있는 교육정책·정보지 월간 행복한 교육이  
웹진을 새단장하여 더 빠르고 더 넓게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특색사업과  
명예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지역소식도 만나보세요.

 보기 쉽고 아름다운 디자인

 구독 신청도 간편하게 클릭

 모니터단 커뮤니티 기능 강화

 명예기자들의 다양한 지역소식 풍성

 시·도교육청의 특색사업 소개